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청구전

샌드박스모드

-로그인하자마자 이 세계를 정복해버렸다!-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배 유 립

석사학위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샌드박스모드

-로그인하자마자 이 세계를 정복해버렸다!-

SANDBOXMODE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배 유 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태

샌드박스모드

-로그인하자마자 이 세계를 정복해버렸다!-

SANDBOXMODE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배 유 림

배유림의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을 인준함

202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한 동 호 (인)

심 사 위 원 김 정 현 (인)

심 사 위 원 김 선 태 (인)

그림에서 샌드 박스 모드가 실행이 된다고?!

‘sandbox mode’란 게임의 모드 중 하나로 사용자가 특정한 목표 없이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드이다. 이 모드는 막강한 자유도를 기반으로 하며, 목표가 존재하더라도 그 목표를 유저가 능동적으로 조절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나 가상공간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플레이어가 배치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샌드박스 모드를 기반으로 평면을 하나의 창으로 본다. 그리고 그 창을 다른 유저(제3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공간에서는 어느 것이나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없을 수 있다. 점에서 선, 선에서 면으로 이어져 하나의 그래픽을 만드는 것과 평면의 텅 빈 배경지에서 붓으로 점, 선, 면을 이어서 무언가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렇게 샌드박스 모드를 플레이하는 모습과 나의 작업은 많이 닮아있다.

이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음이 가능했던 건

작업 바탕을 샌드박스 모드로 정했던 이유는 공간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되었다. 거처에 대한 확실한 안정감이 없다고 느낄 때, 그 공간은 오히려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임시적인 공간에 내가 넣고 싶은 것들로만 채웠다. 난 이것을 도피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현실적 공간에서 도피에 대한 한계가 찾아올 때 평면의 확대가 시작된다. 이런 욕구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평면에 닿았을 때 왜곡과 이질감으로 평면에 표현이 되었다. 인물이 시점으로 인해 왜곡된다거나, 같은 오브제의 입체적 단계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 여러 표현 중 하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켜 나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작업이 출발되었다.

감정군에게 연결짱과 단절짱은 무척 소중한!

불안감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안정되지 않은 감정이라는 것으로 인해 처음으로 감정을 분해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느낀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통제 불가하다 생각했다. 애초에 사람을 반가워하지 않는 내가, 어쩌면 그 대상이나 현상의 뜨거울지도 서늘할지도 모르는 감정을 온전히 가지고 싶다. 때로는 감정을 차단하고 싶을 만큼 버거워, 세상에서 잠시 혼자가 될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낸 완전한 공간에서 잠시 스위치를 끈 마냥 모든 관계와 단절되고 싶었다. 반대로 동시에 관심과 감정을 주고받으며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싶다는 양가적인 욕구도 있었다. 이 느낌은 우리가 주고받아온 감정의 잔해로 영겨 있기 때문에 연결의 욕구를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 감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작은 티끌 같았지만 뒤돌아서 보았을 때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을 때도 있고, 생각보다 가까이 와있거나 멀리 가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뒤죽박죽의 방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면에 나타낼 때 감정의 무게를 덜고 조금 더 가볍게 표현해 보았다.

이 세계 라이프는 계속된다.

감정을 샌드박스 모드에 표현하게 되면서 순수하기도 하고 날것으로 다가온 감정의 풋풋함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집중해 보았다. 이렇게 연결과 단절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 양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과정을 알아가게 되었다. 공간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작된 작업이지만 이렇게 공간의 확대를 하면서 나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때로는 지극히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더 큰 불안감이 다가와 다른 구축으로 회피를 할 수 있겠지만 내 상상력이 계속되는 한, 이 세계 라이프는 계속될 것이다.



**SANDBOX
MODE**

목 차

Loading...

1. 감정쿤에겐 연결짱과 단절짱은 무척 소중한!
2. 몰라요! 무리무리무리!
3. 방심은 금물이라구!
4. 어째서, 특별편!

Go to chapter

Chapter 1

감정론에겐 연결짱과 단결짱은 무척 소중한!

Warning

거짓말

분명히 컴퓨터로 메일체크만 했는데..

귀여운 야옹이만 보려고했는데... 여기는 어디지?

샌드박스 모드라고 적혀있어...

이게 뭐야.. 샌드위치게인가..?

... 샌드박스 모드..핸드폰은 있으니까 찾아봐야지

사용자가 특별한 목표 없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군

빠져나갈 방법은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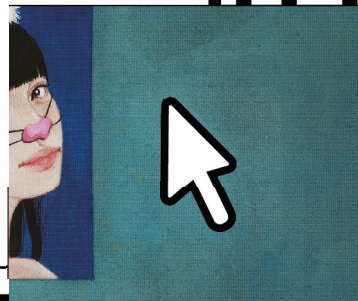
샌드박스 모드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거야..

일단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파칭-

앗 이게 뭐야 그냥 폴리곤 덩어리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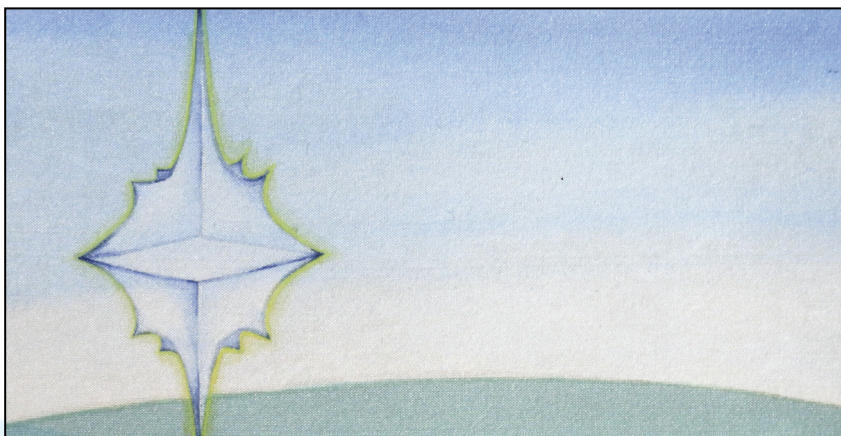
맘에 안들어... 필드도 내가 구축해야되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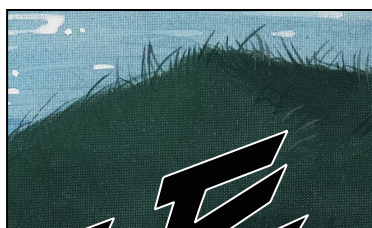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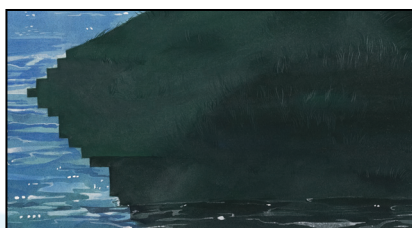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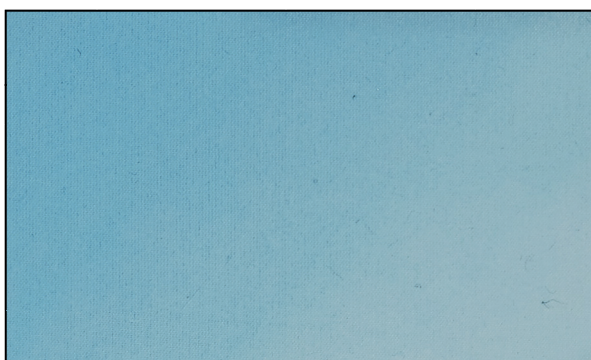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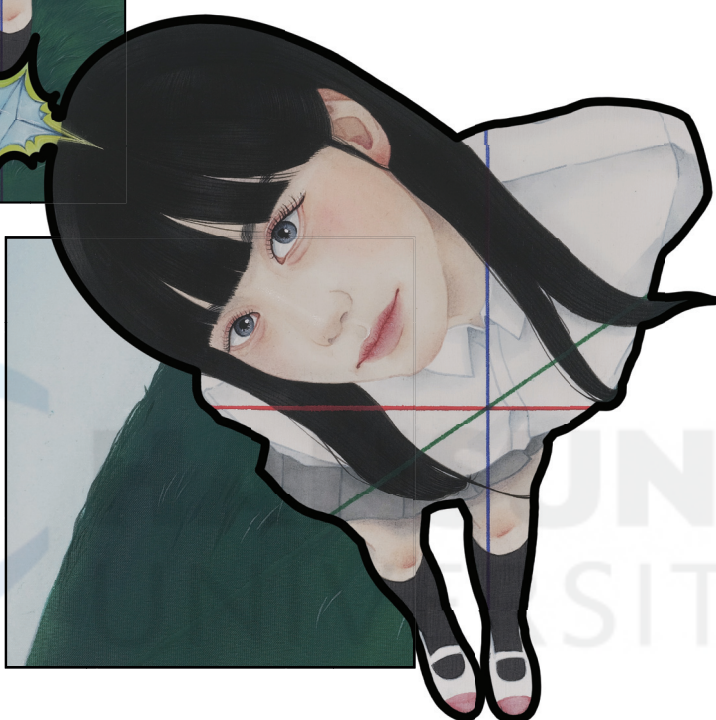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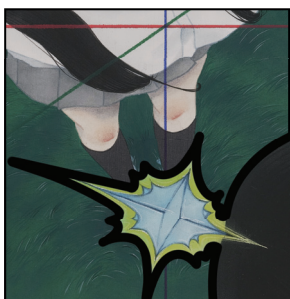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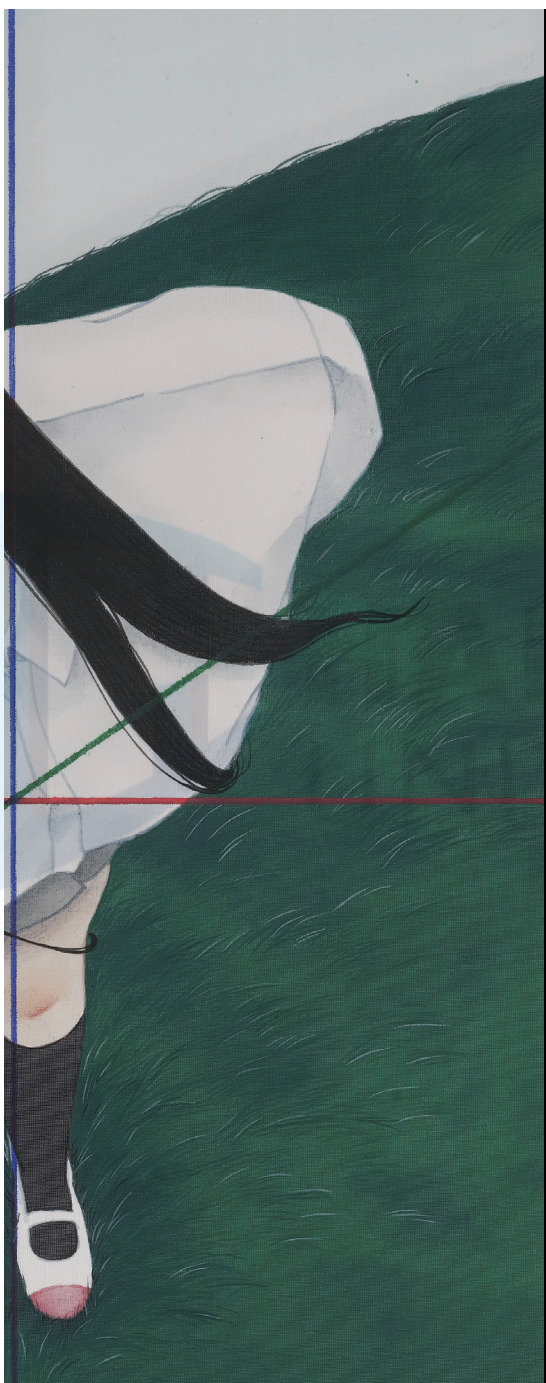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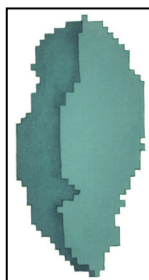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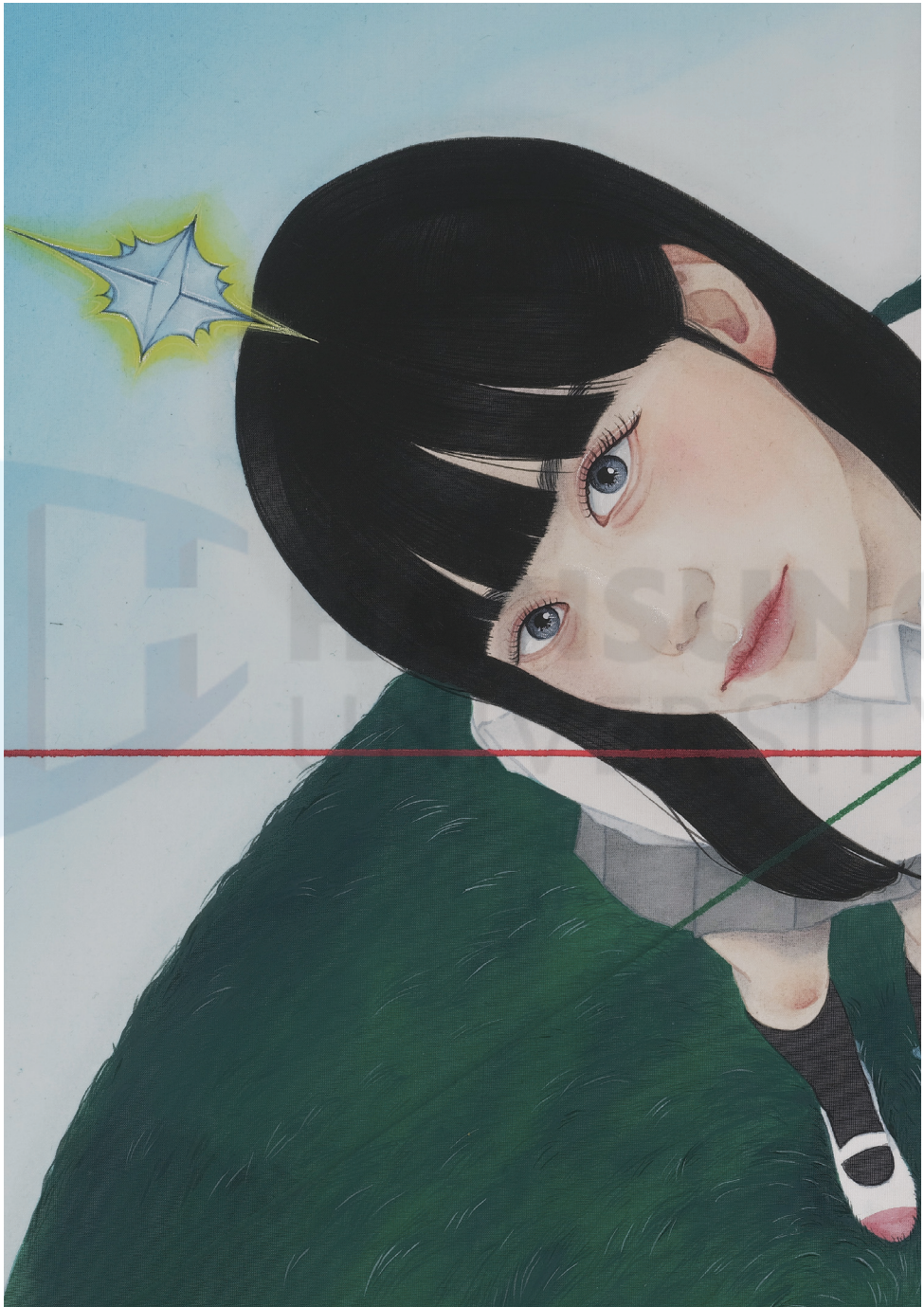
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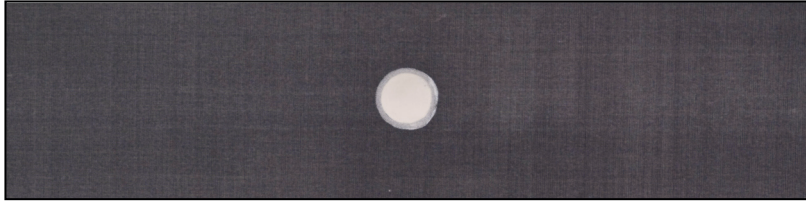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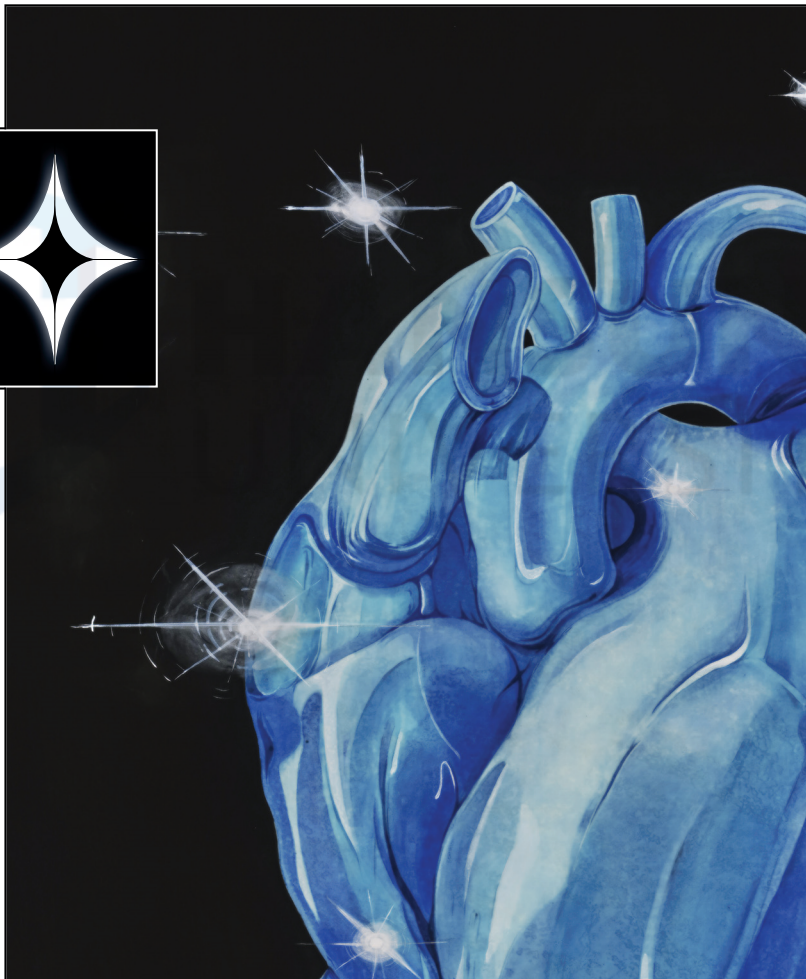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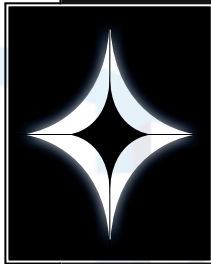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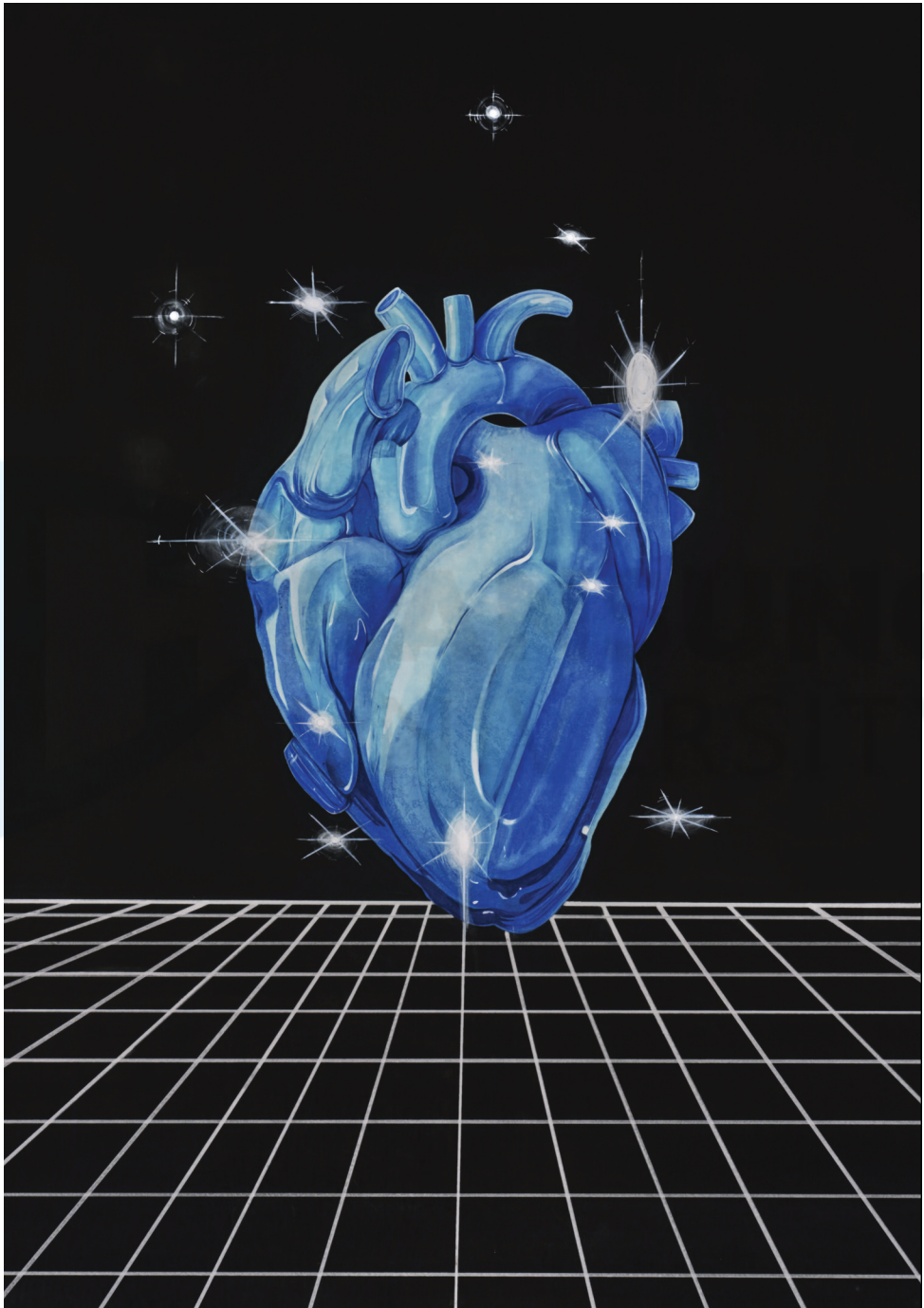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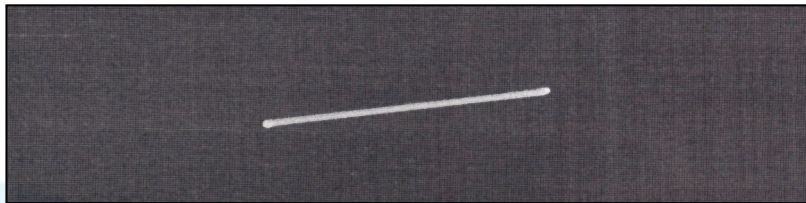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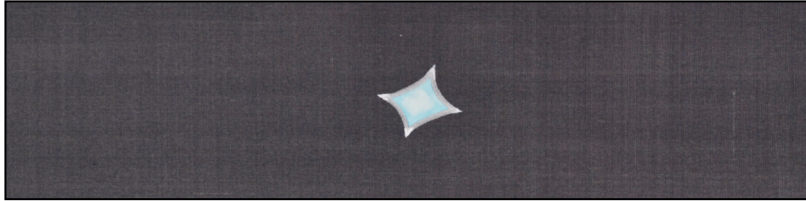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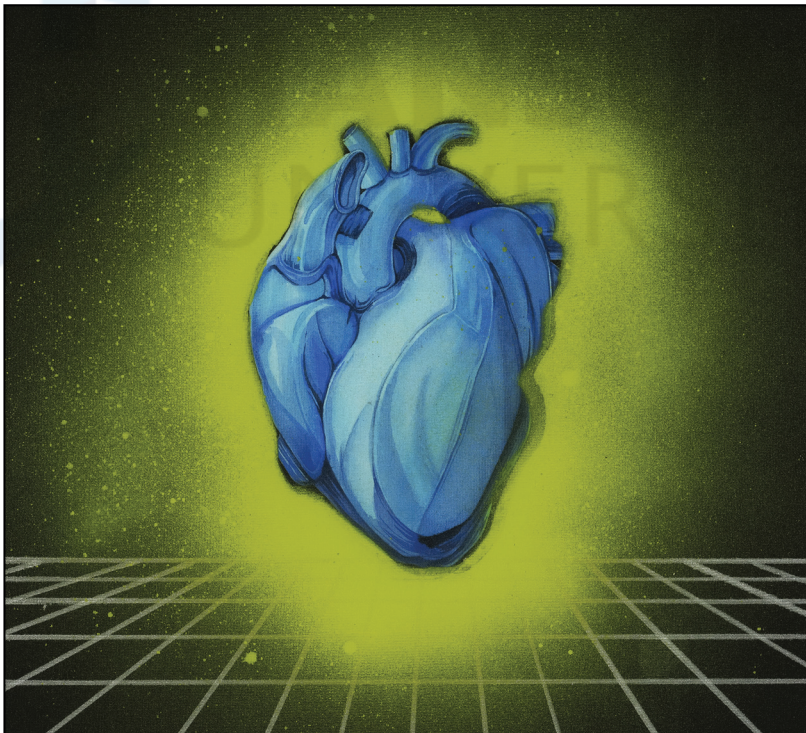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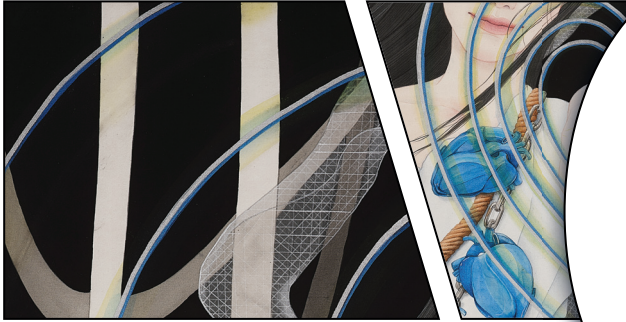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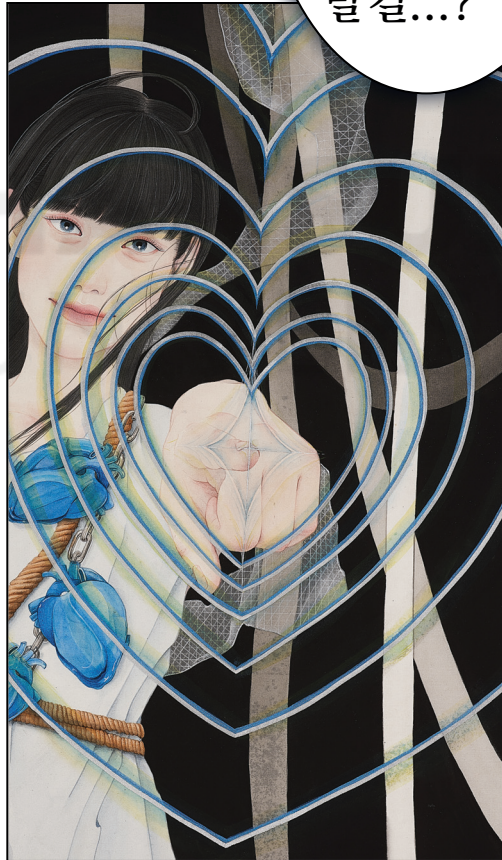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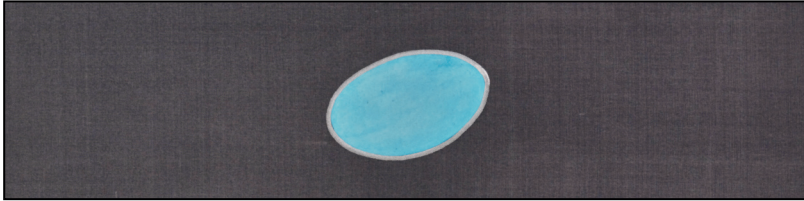
13

이정도
캐릭터
설정이면
나에게
다 빠져들고
말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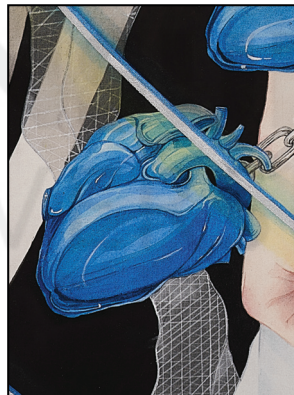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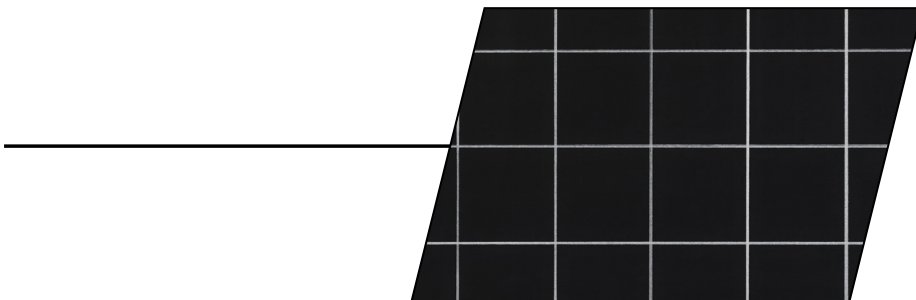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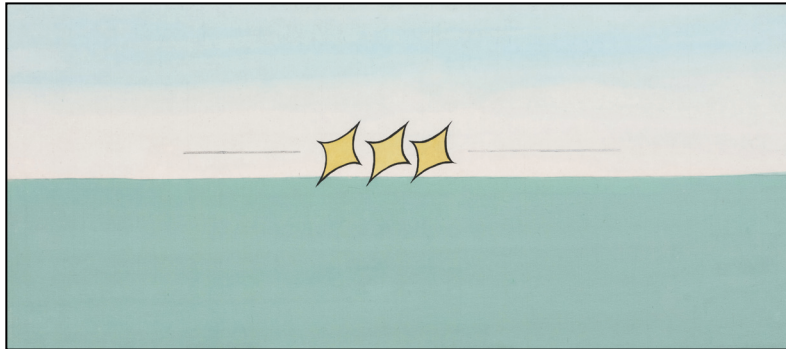
NG
TY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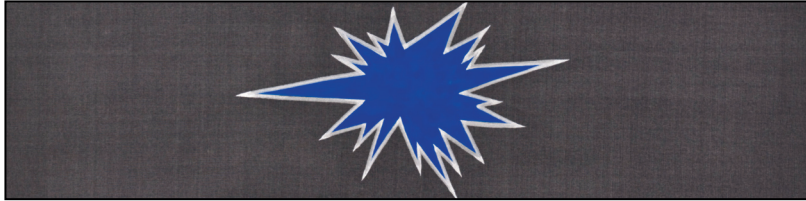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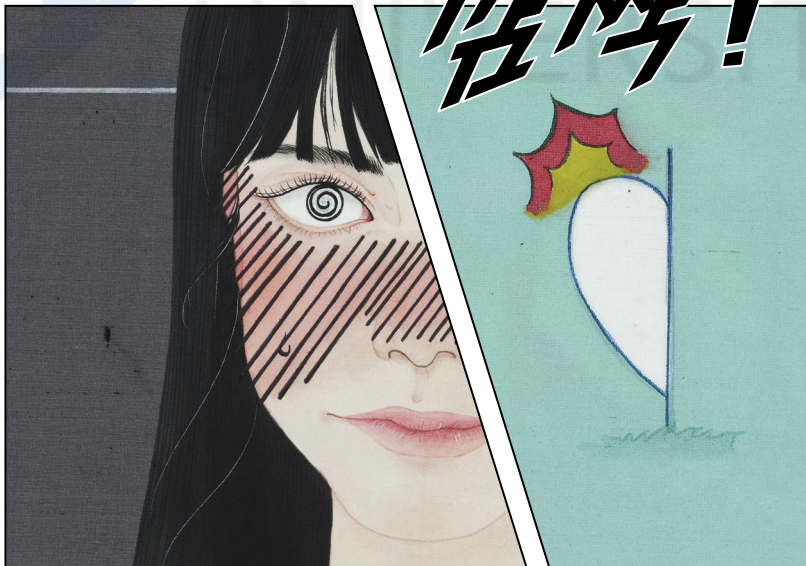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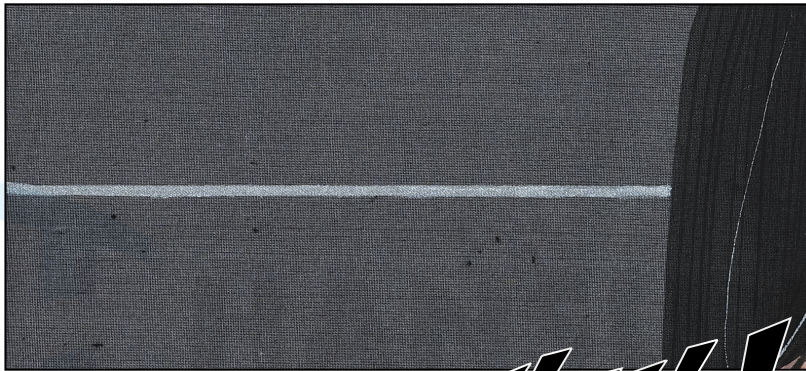
17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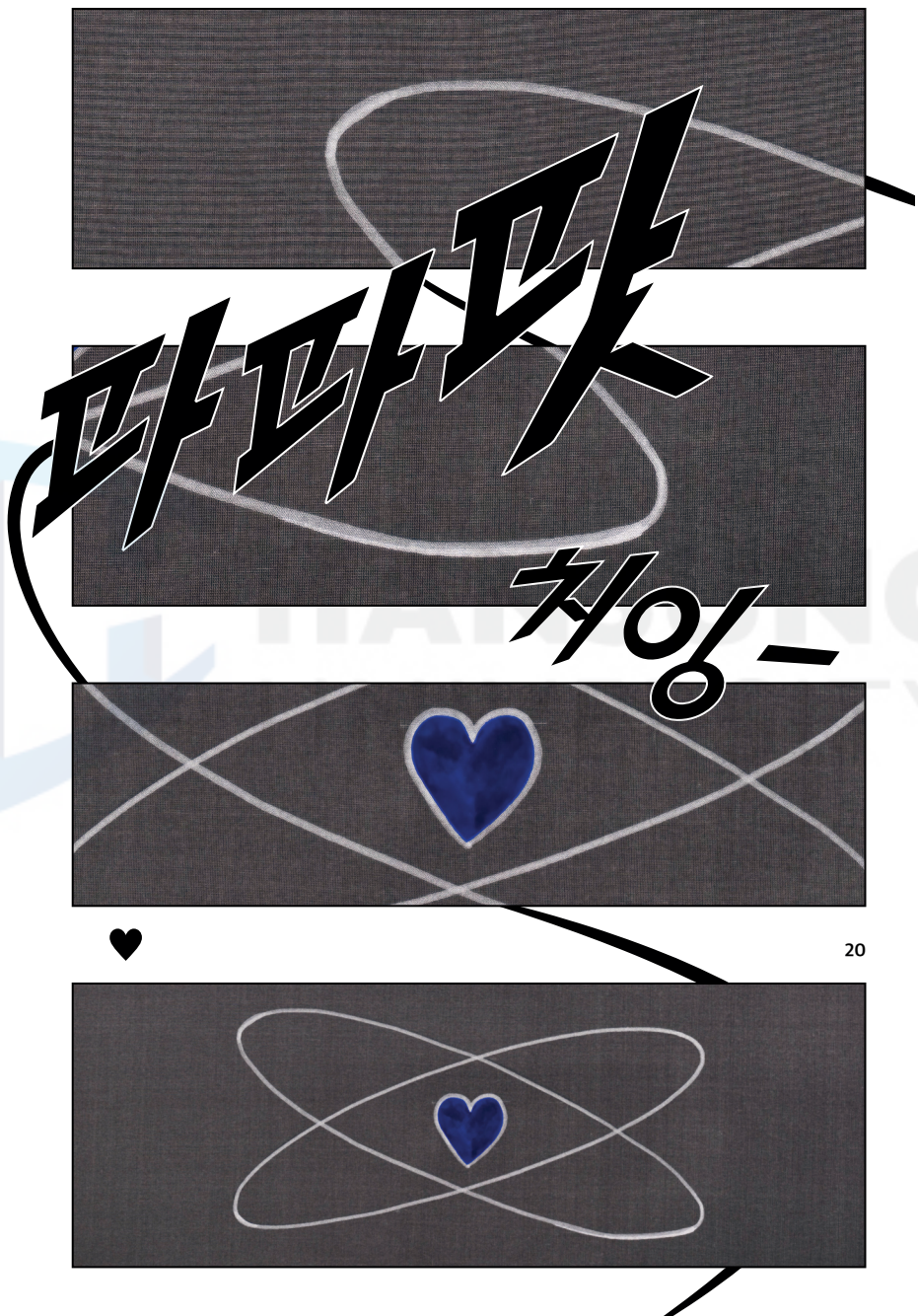
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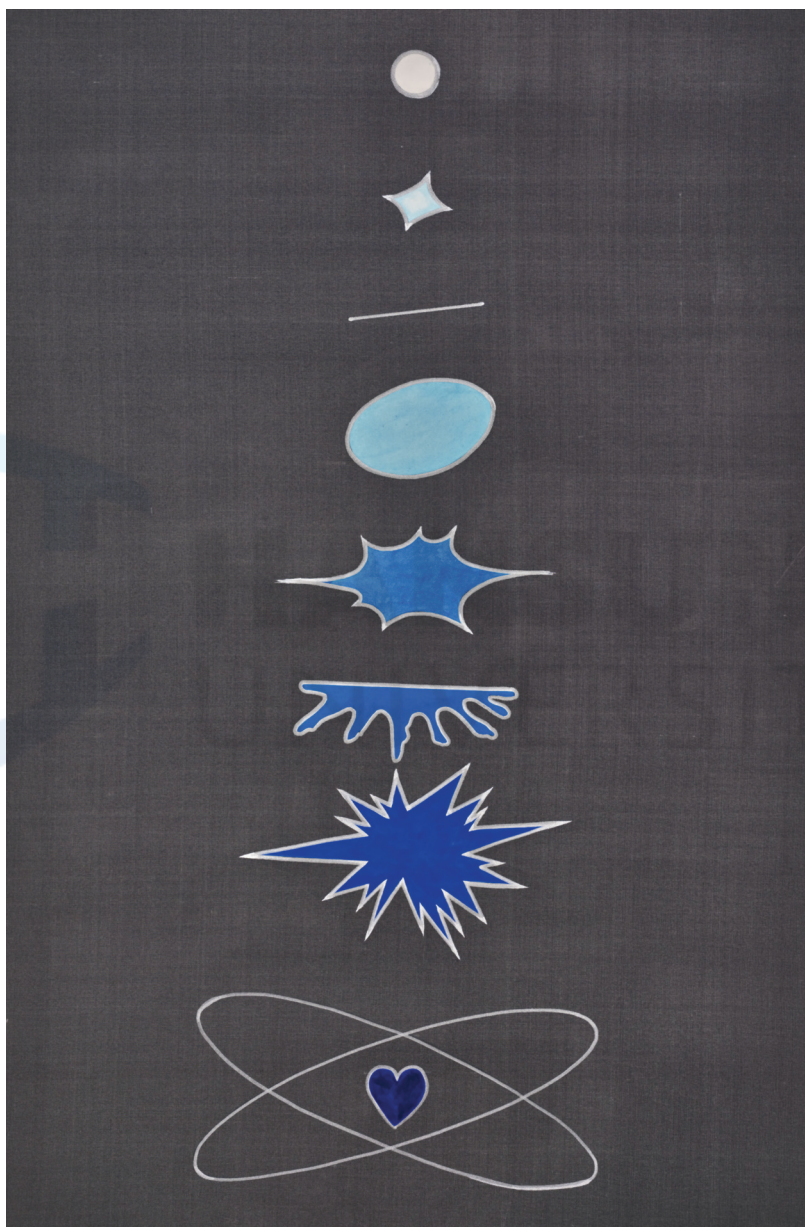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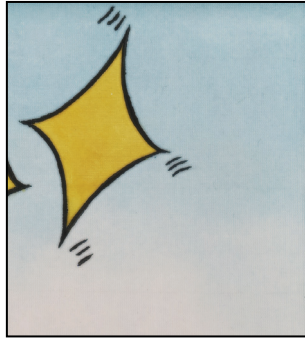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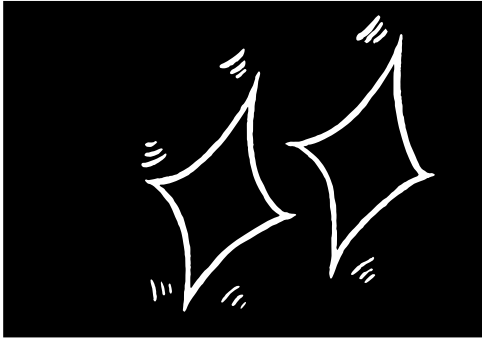




...이게
아니잖아~~~!
두근거릴 때가
아니라고~~~!
정신 차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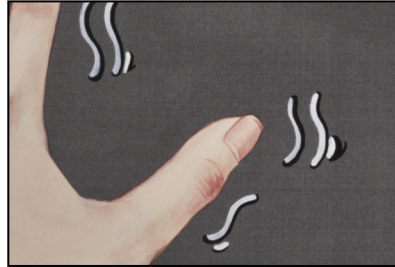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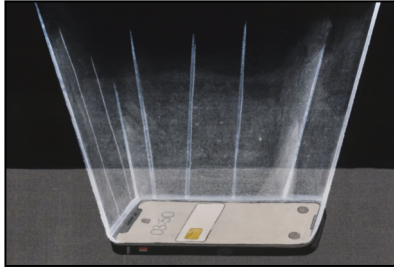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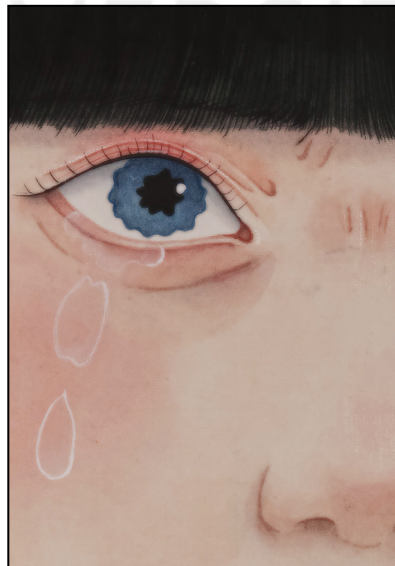
23







24







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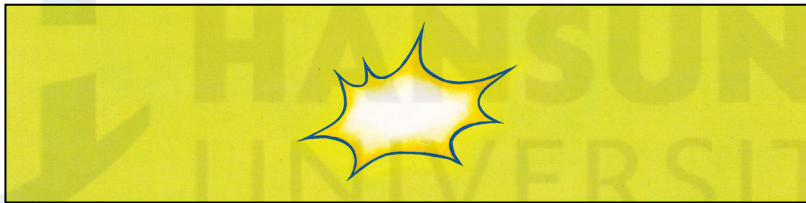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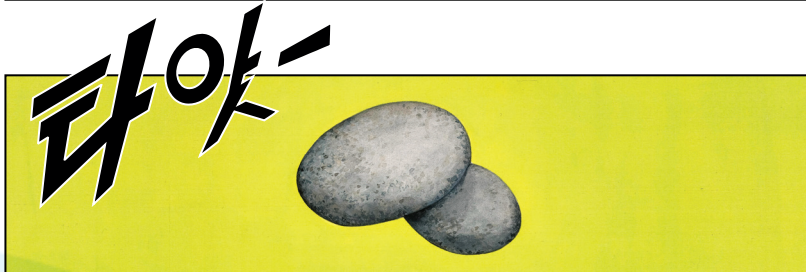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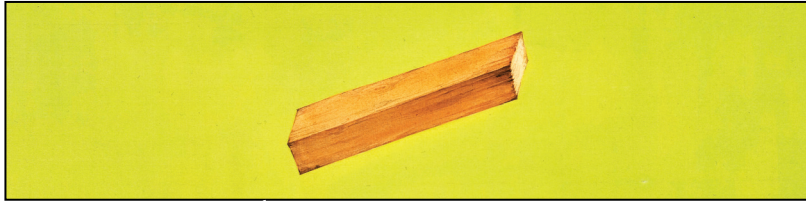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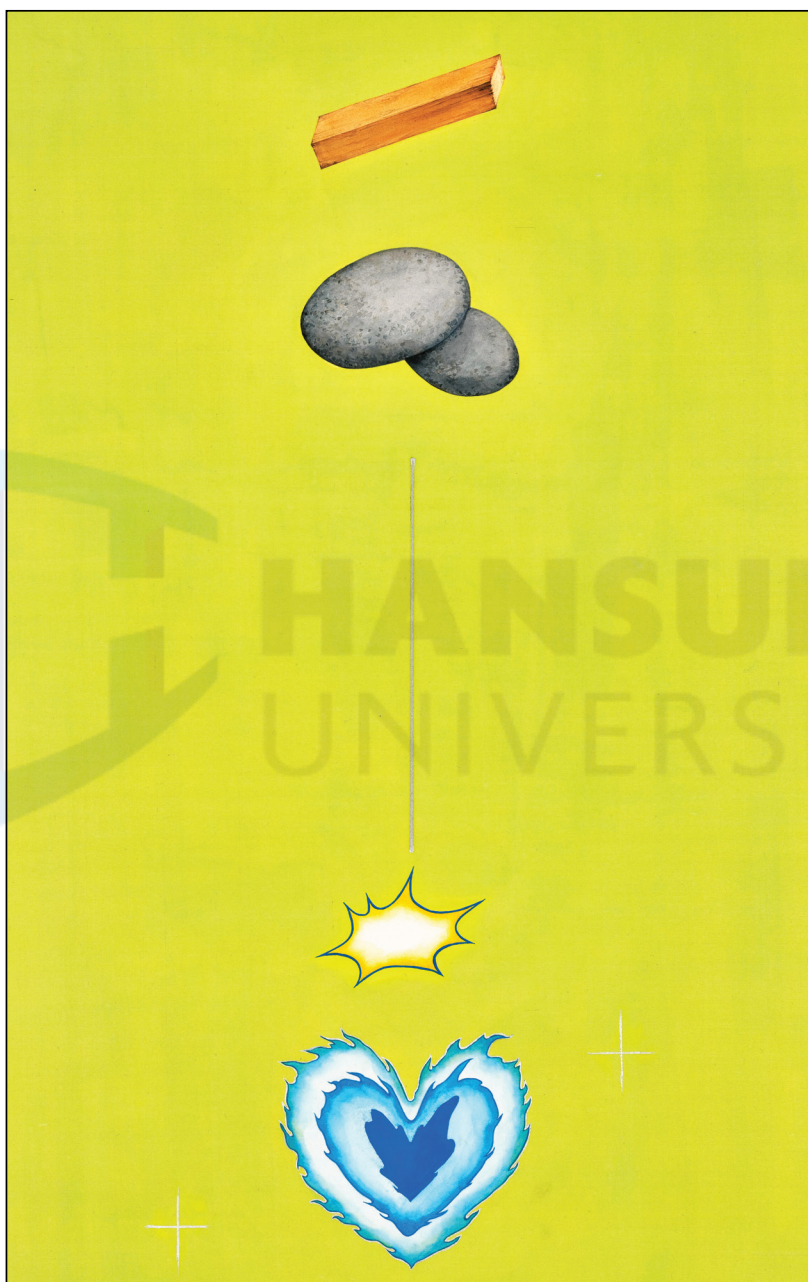




절대  
바이러스  
아닙니다.  
믿어  
주세요... 전  
야옹이입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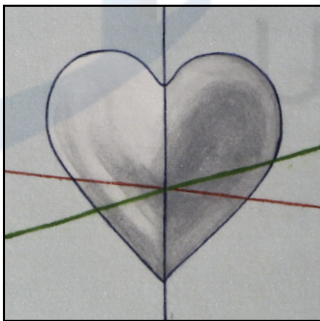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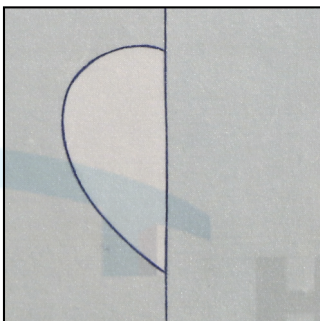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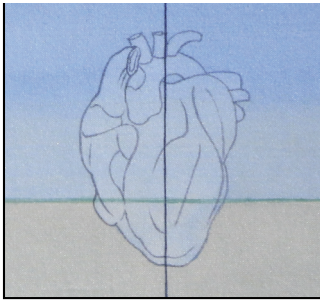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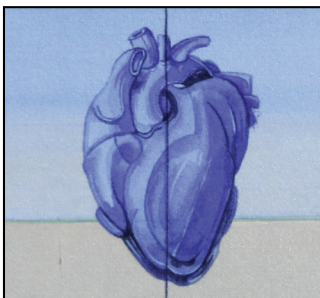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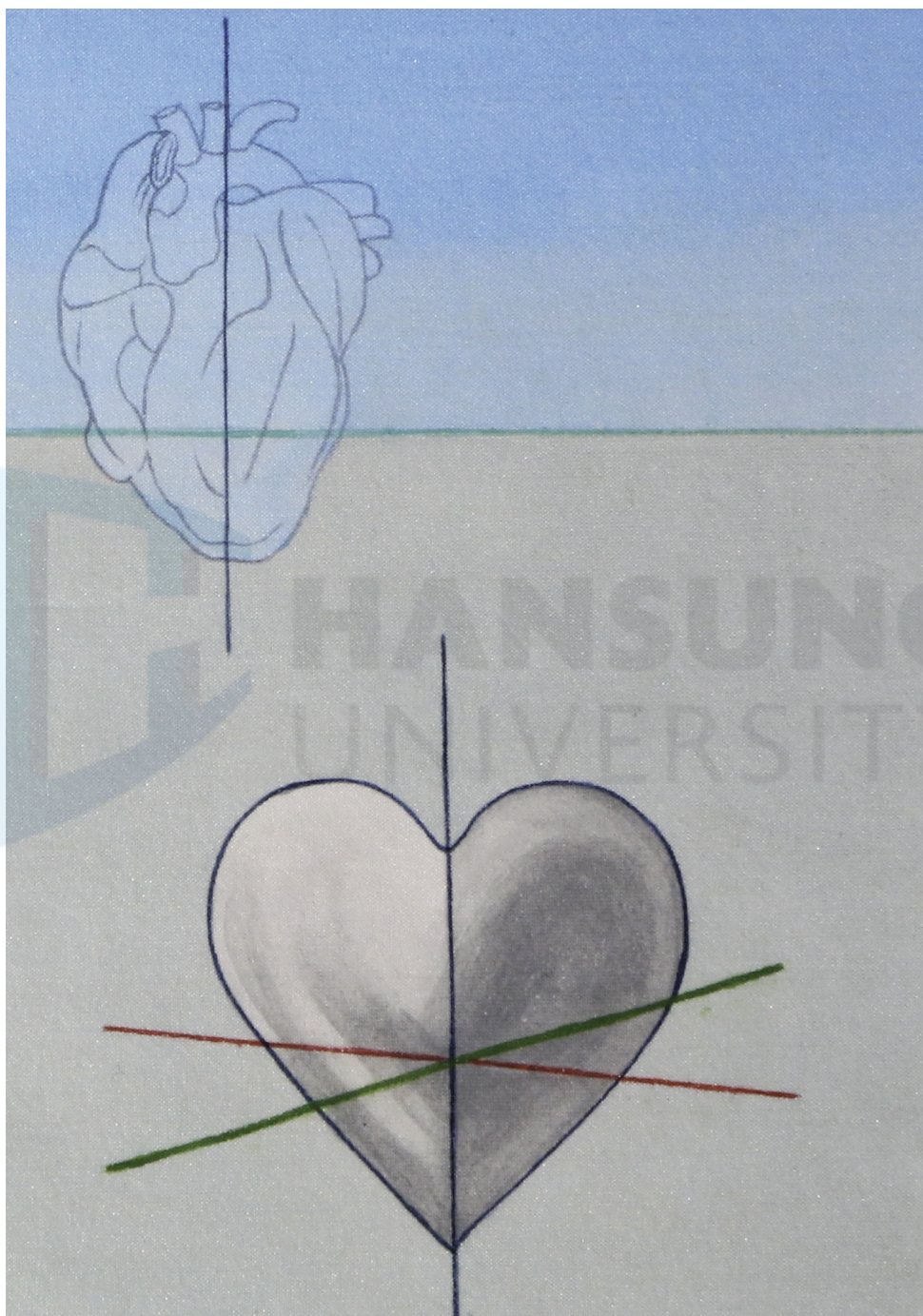




31











Chapter 2

몰라요! 무리무리무리!



Warning



코너 속 코너



### [연애의 틈입]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이 사람이면 나는 행복할 텐데  
왜 반나절이 지나도 답장이 안 올까

나만 마음에 들었던 걸까 ..

나는 널 감당 못 해..  
그러니 우리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줘...!!

내가 과연 저 사람과 걸이 맞을까?

너무 취향이 같아서 문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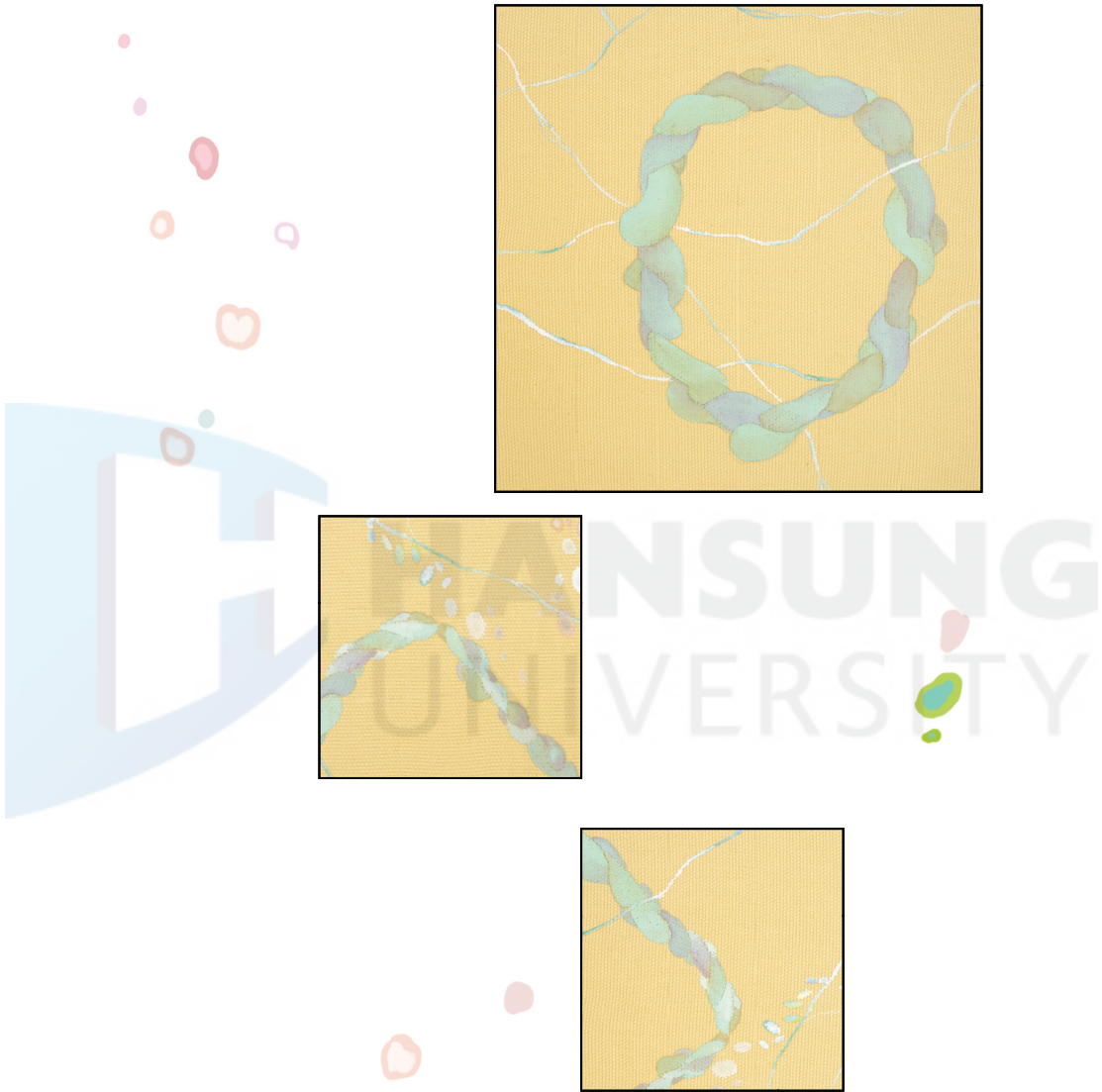
우린 생각이 너무 똑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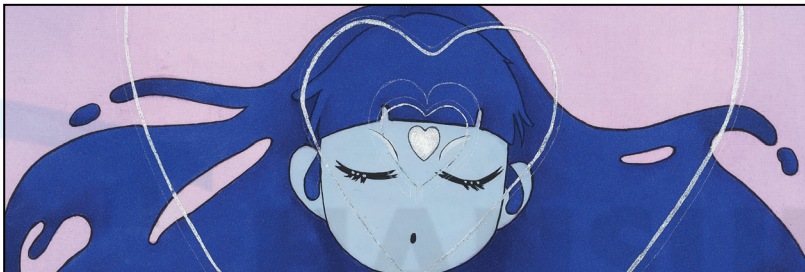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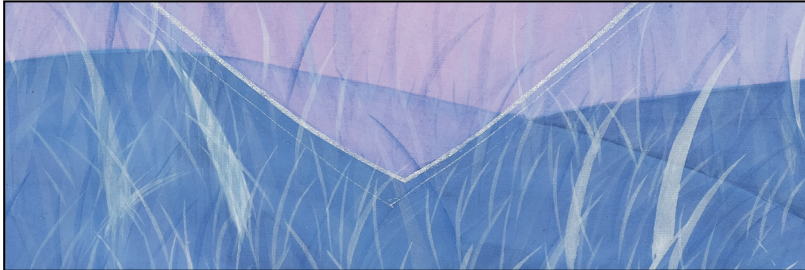
나는 그 사람과 만난 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동기화되듯 모든 것이 똑같아졌다.

지각이다 지각!!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매번 만날 때마다 늦네..

꾸미느라 좀 늦을 수도 있지.. 안 그래?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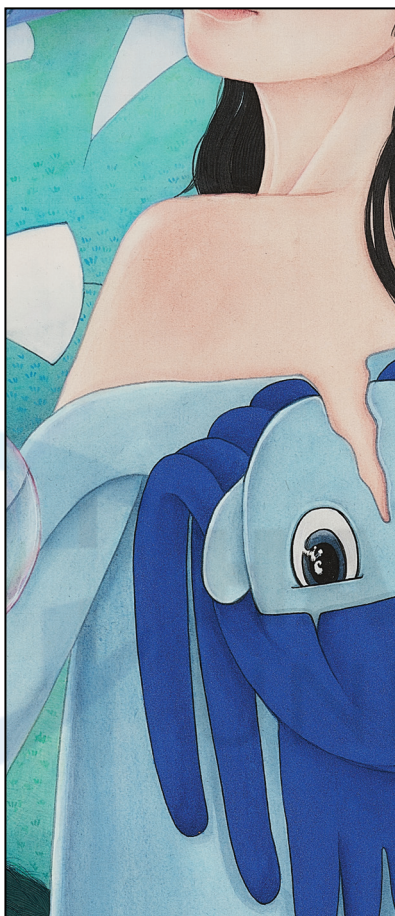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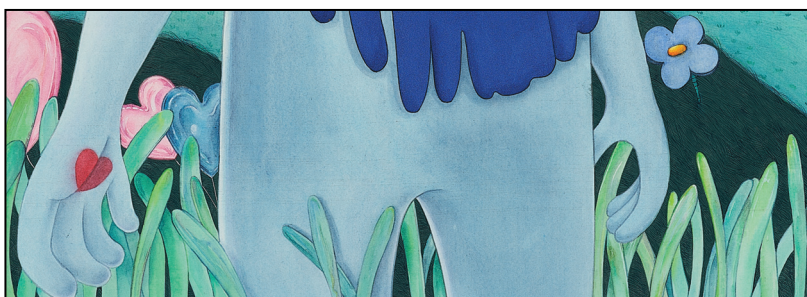


HANS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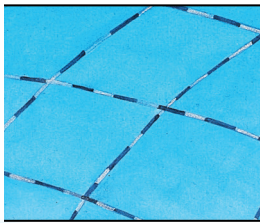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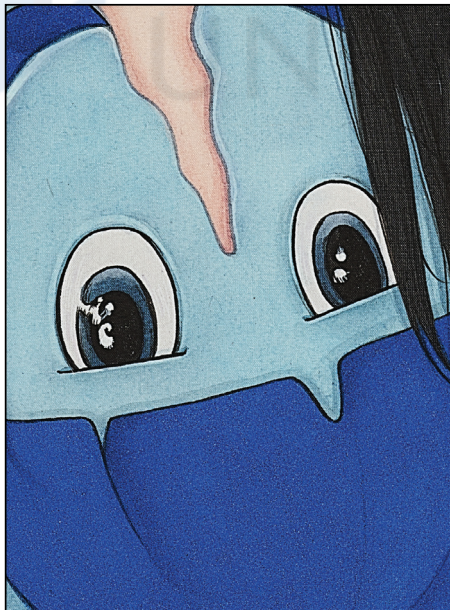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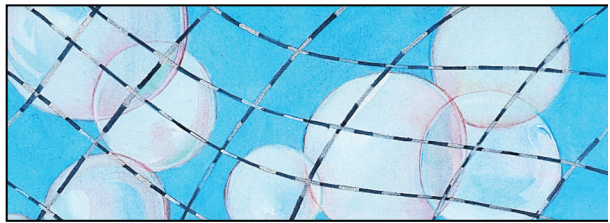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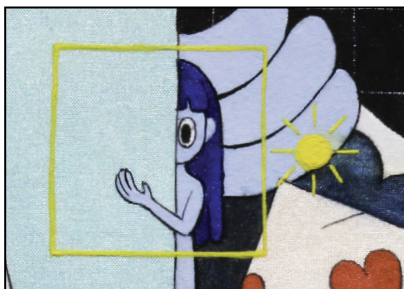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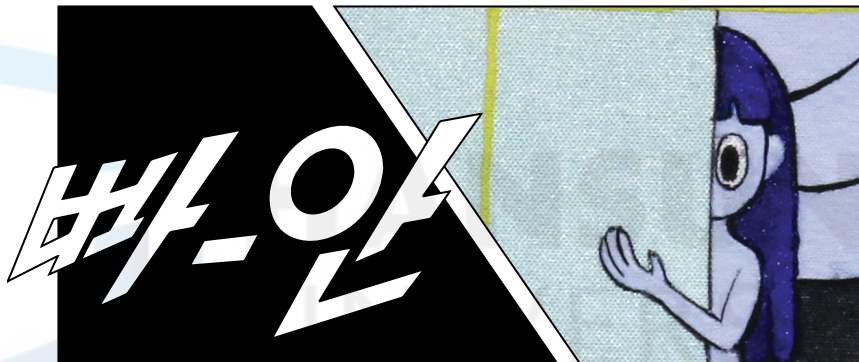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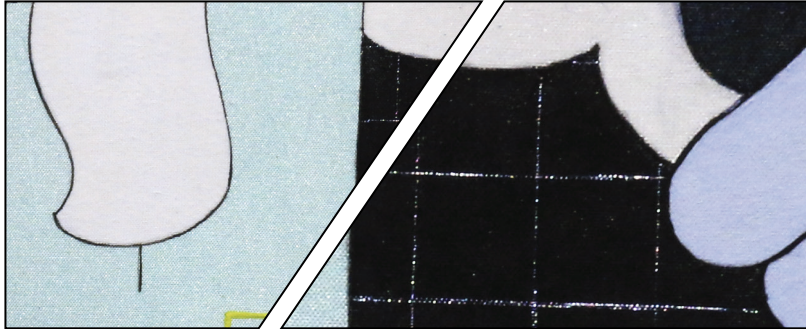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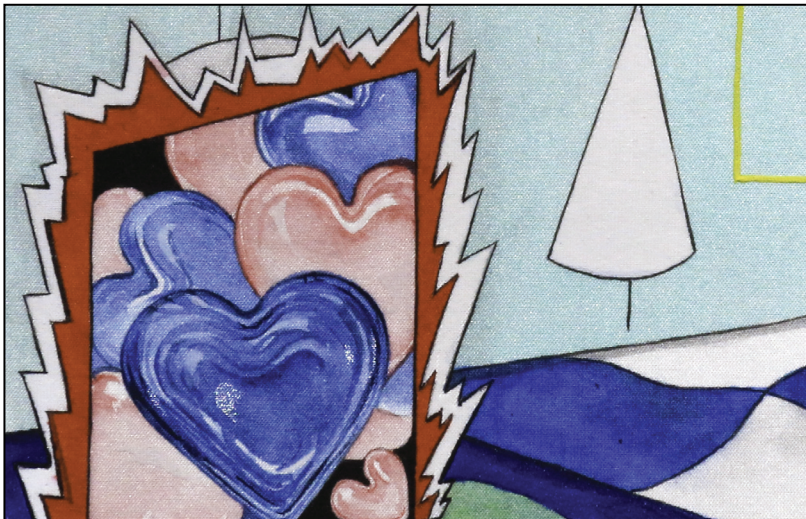


**HANS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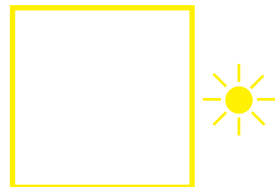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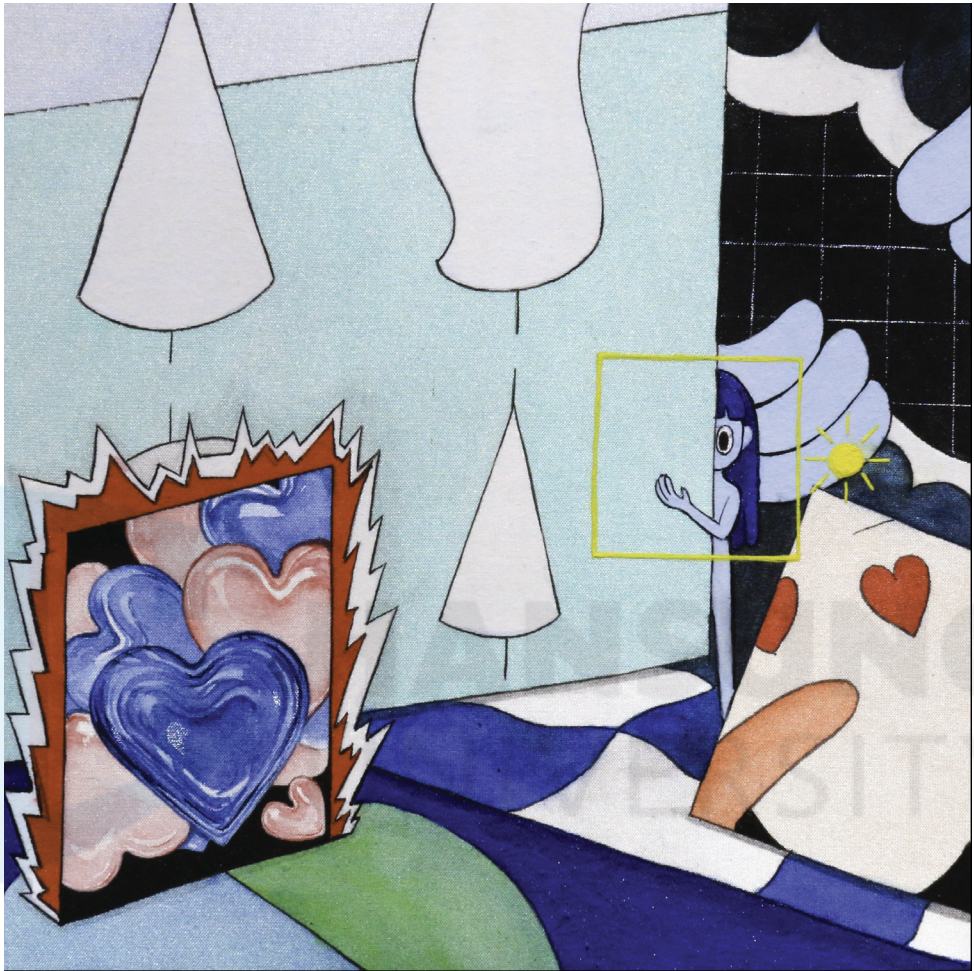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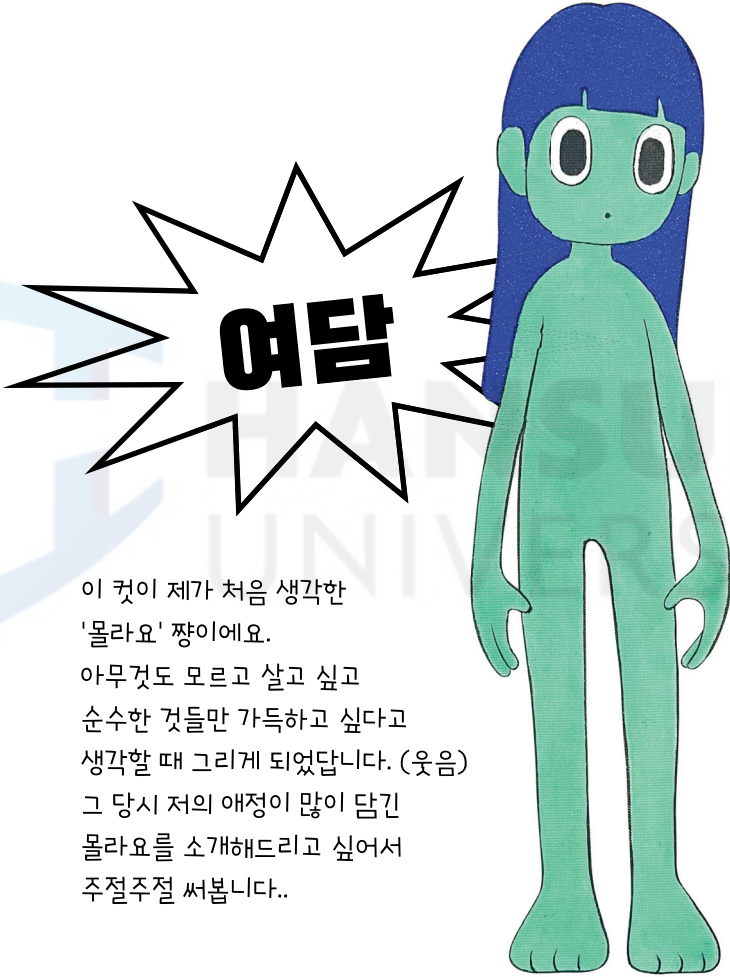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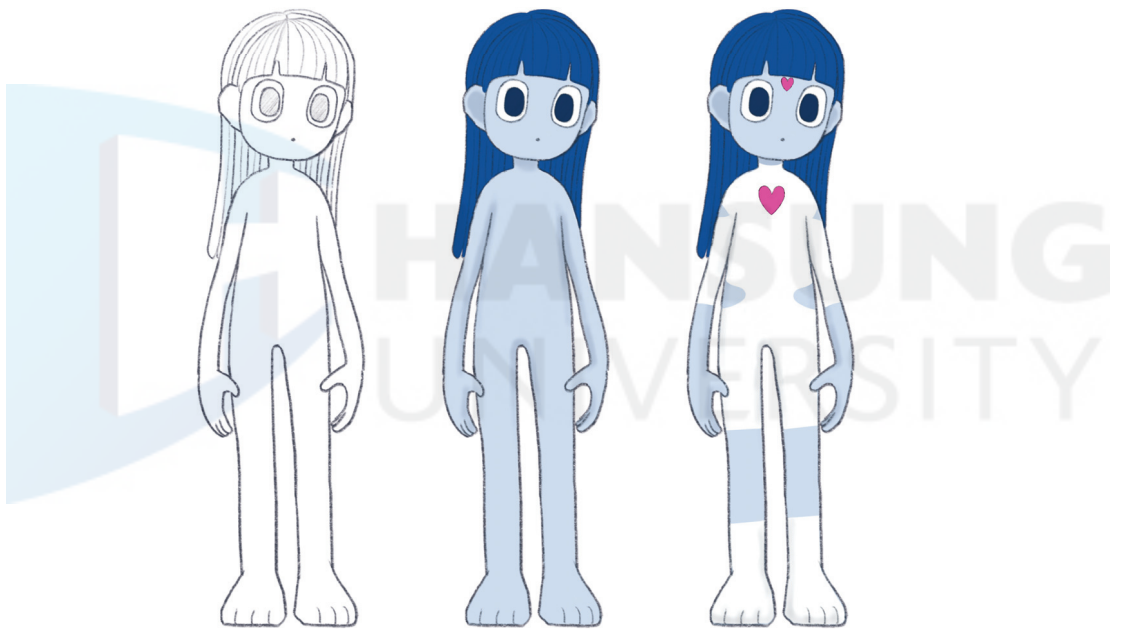






## 여담

이 컷이 제가 처음 생각한  
'몰라요' 짱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싶고  
순수한 것들만 가득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리게 되었답니다. (웃음)  
그 당시 저의 애정이 많이 담긴  
몰라요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주절주절 써봅니다..





2022년도 임인년 기념 몰라요

호랑이띠 중에서도 검은 호랑이의 해를 기념해서  
검은 호랑이 옷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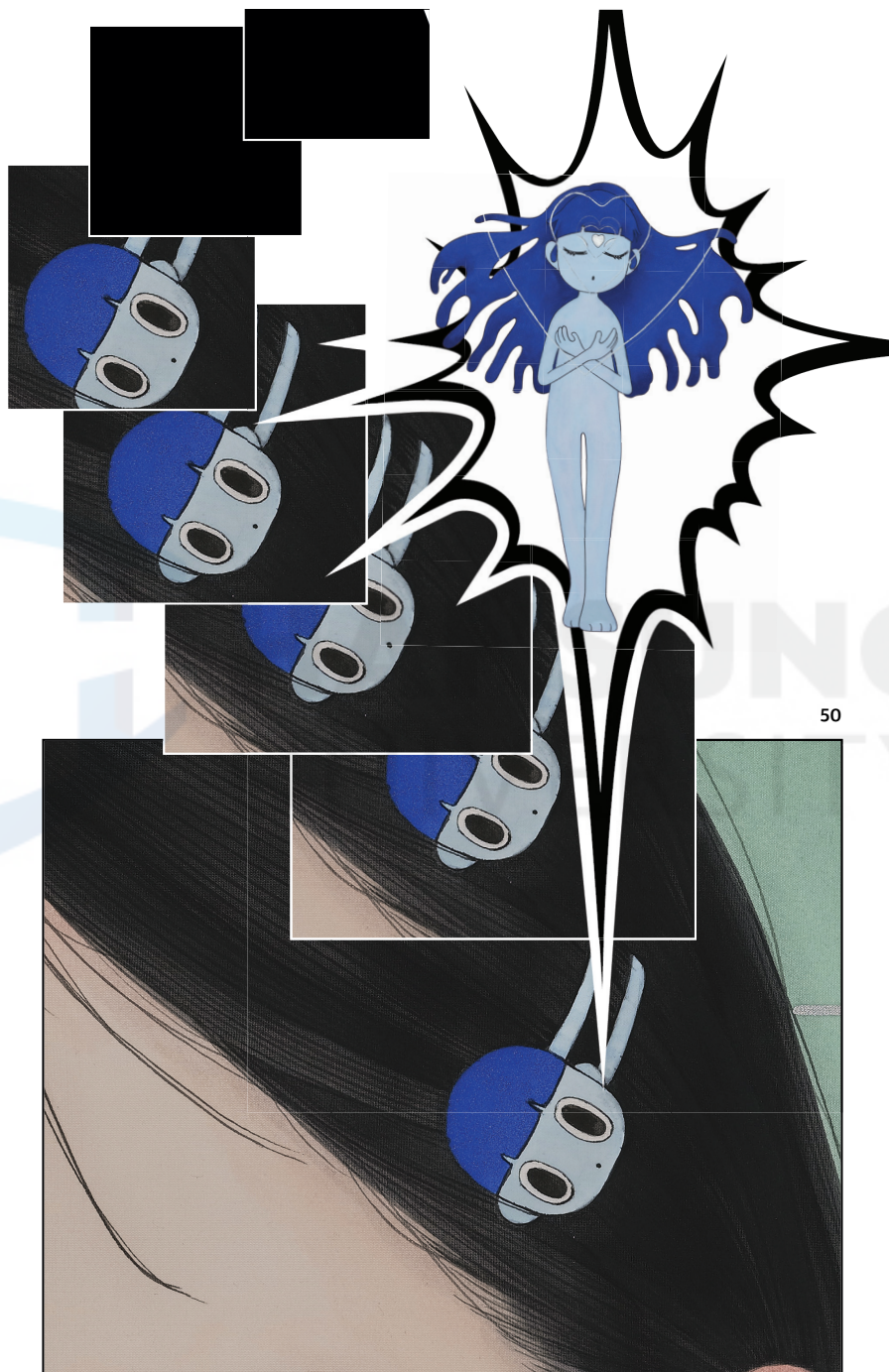
수염과 귀를 가진게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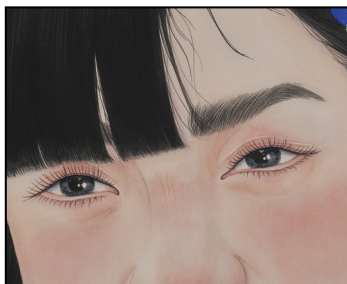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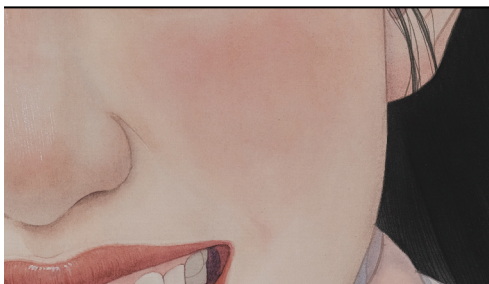
<처음 그린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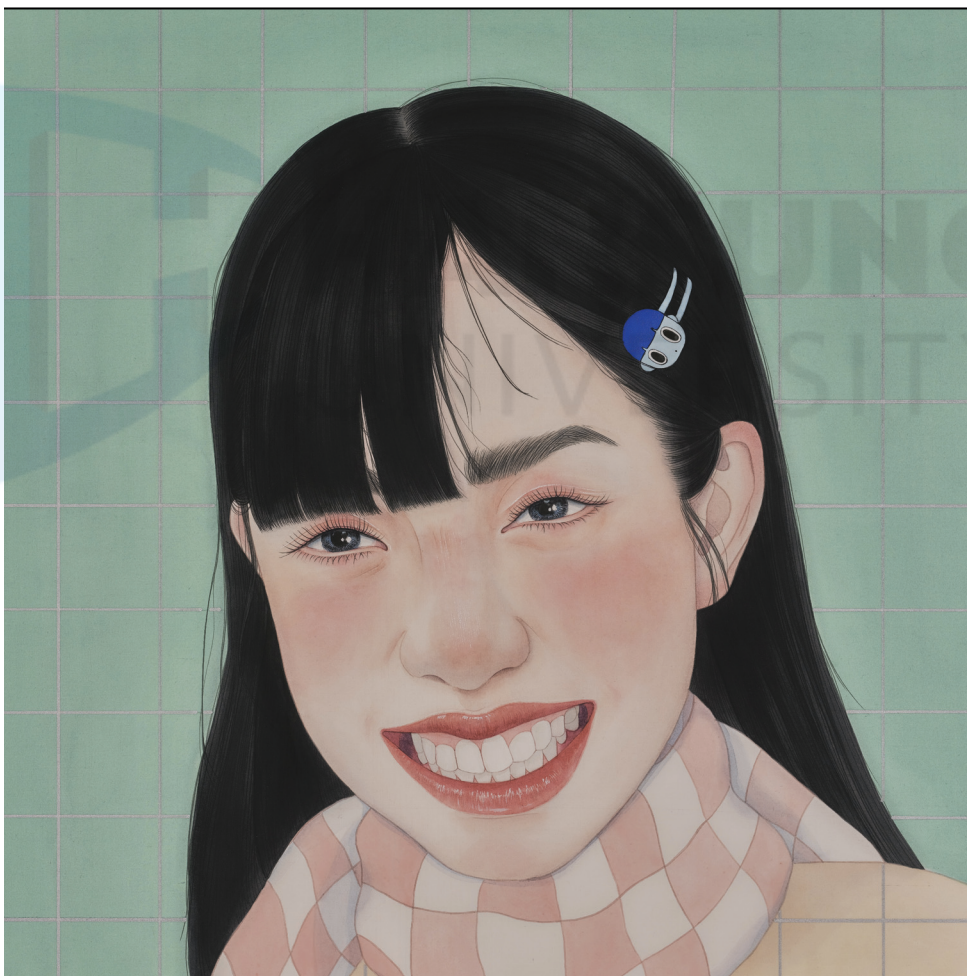








51



**뭐야,  
저거?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잠시 있을 필드는 완성이 되었고...

그렇담 내 외모도 바꿀 수 있나??

(거울을 보며)

이렇게.. 이렇게..

!!!! 된다!

그럼 얼굴을 조금 더 모에화 시켜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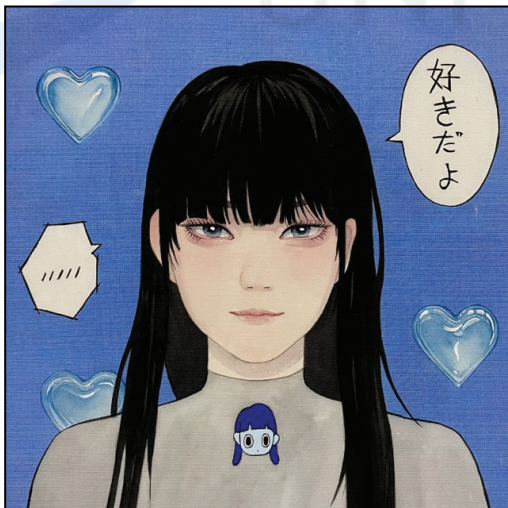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쥬!

내가 원하던 턱이야 히히

흠... 눈 색도 그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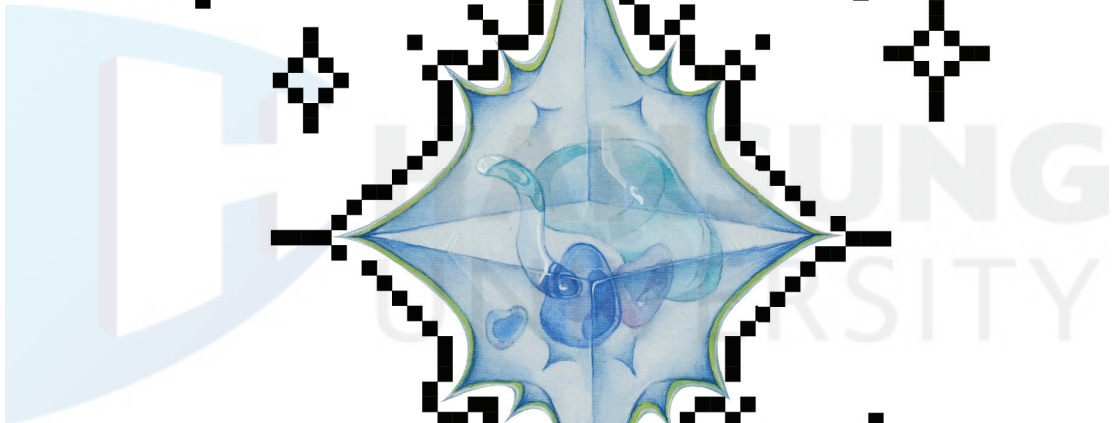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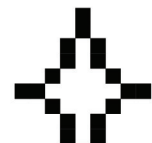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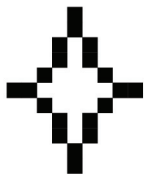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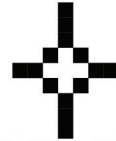
이렇게 컬러팔레트를 조금만 더..!!





Chapter 3

방심은 금물이라구!



Warning



으슬으슬 몸에 한기가 돌았다.

울음을 참기 시작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보았다.  
참았던 설움을 종이에 붙였다.

하하하  
하하  
하...하.....

눈물은 날카로워지고, 눈은 꿈틀거린다.  
작은 움직임은 다른 감정을 불러왔다.

눈은 다른 부위보다 초롱초롱해졌고,  
코는 수축하기 시작했다.  
입술의 색은 없어졌고, 얼굴은 등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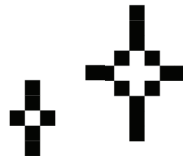
하여간 멋진 건 다 너가 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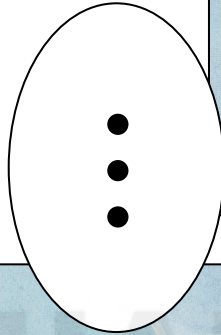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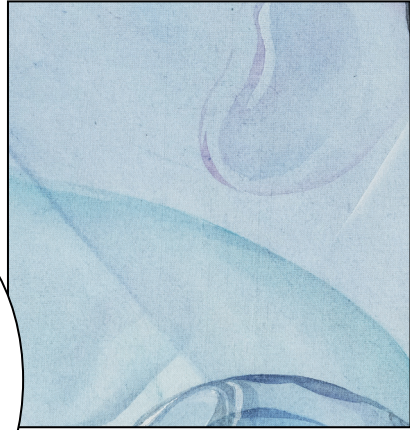
그에게 손을 닿자, 물결과 함께 사라졌다.

나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다니..!

이상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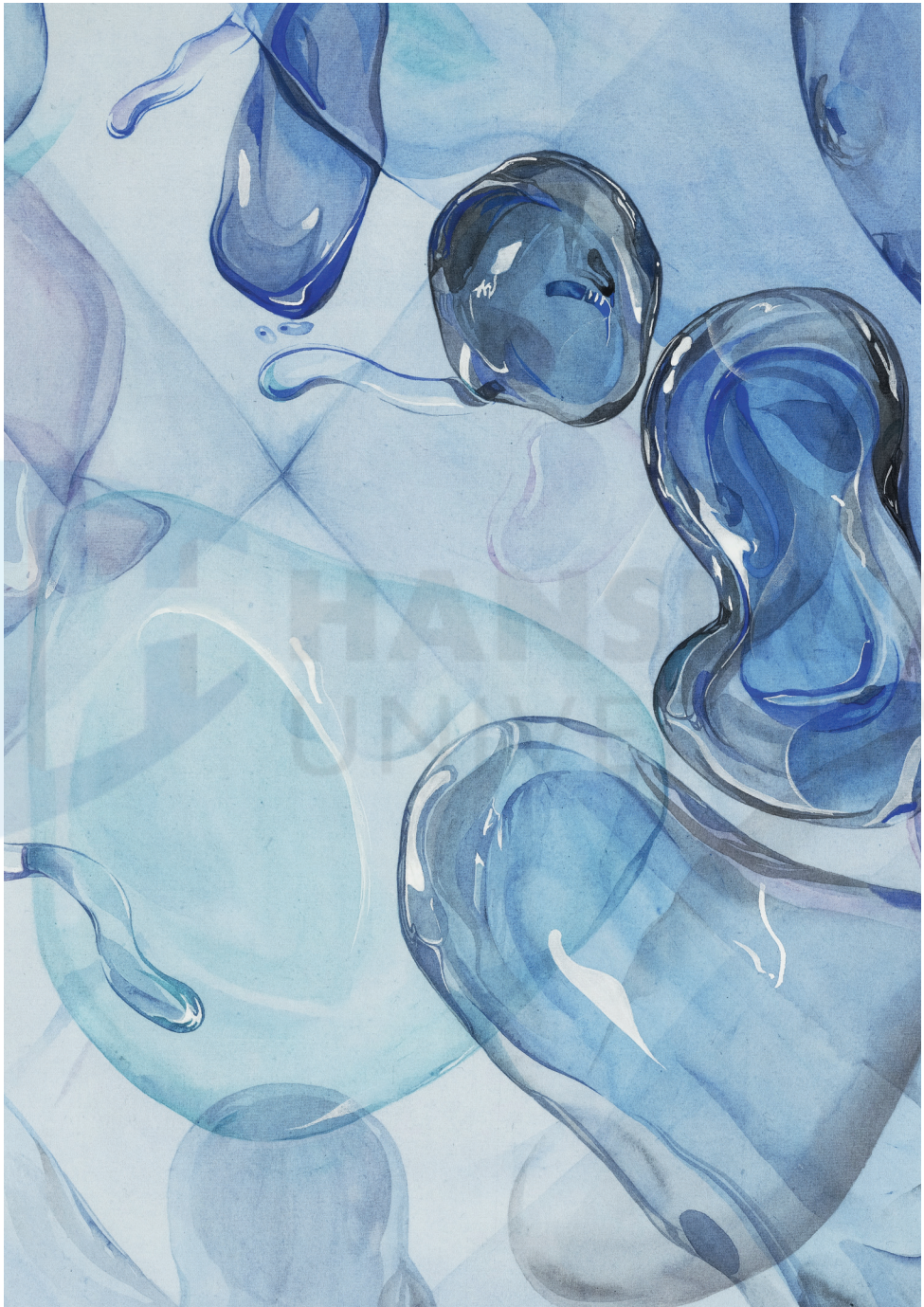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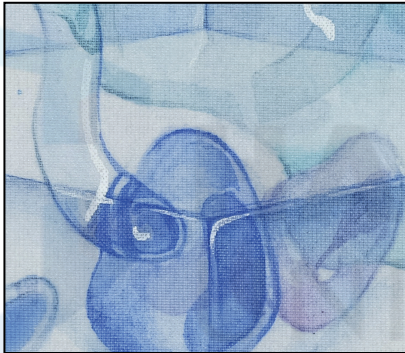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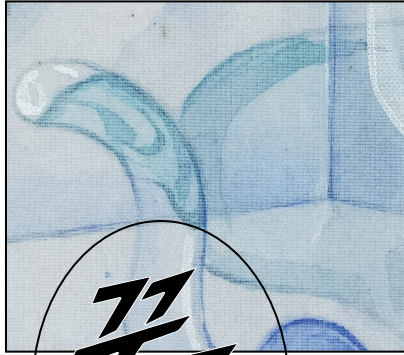
56



풍-







꾸꾸꾸  
꾸꾸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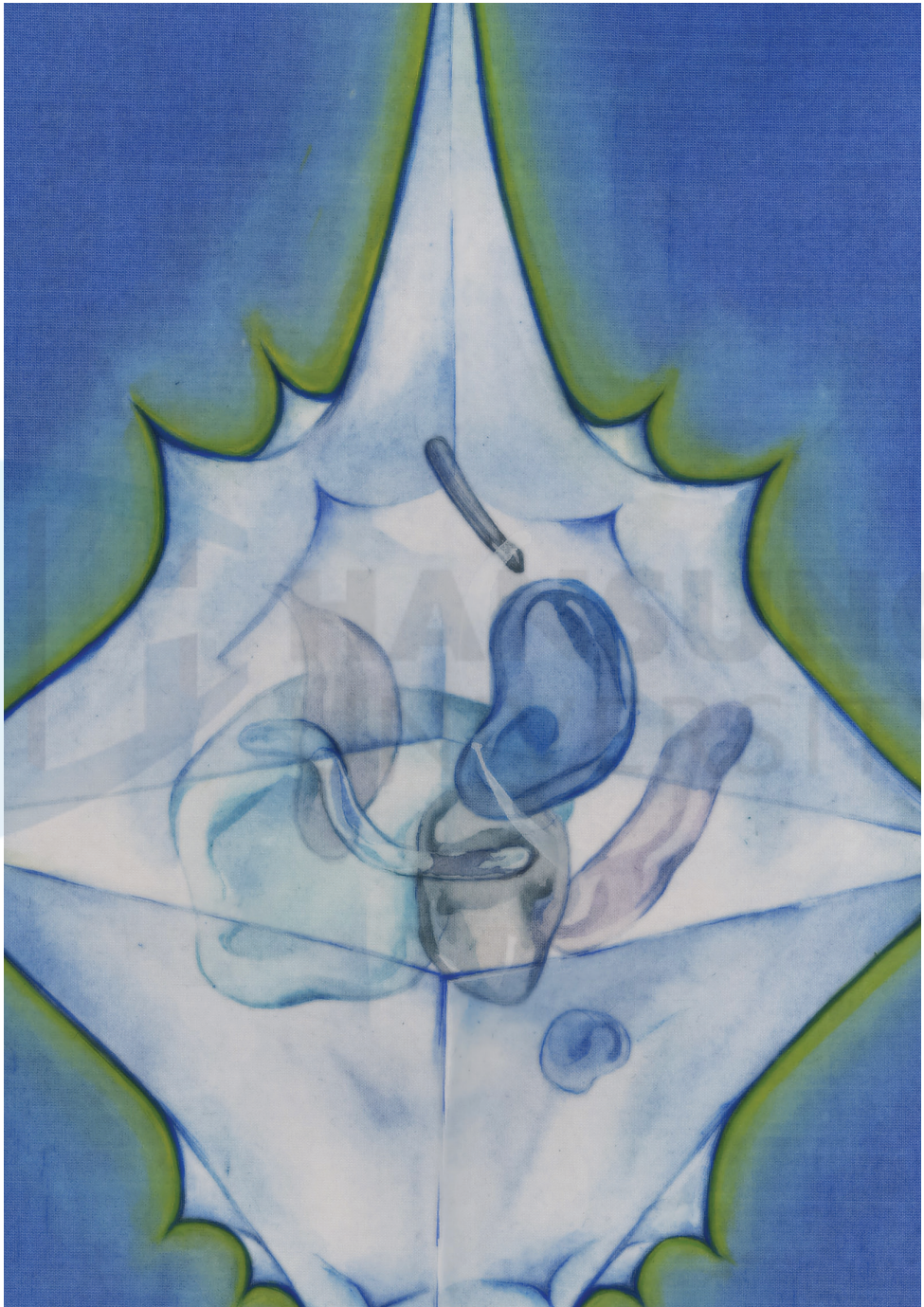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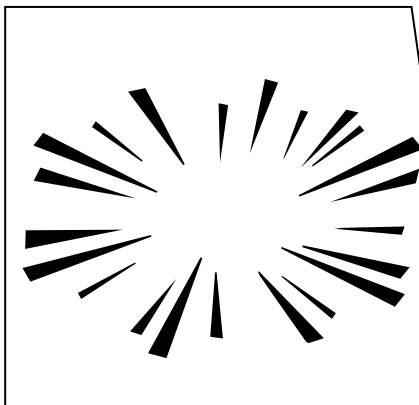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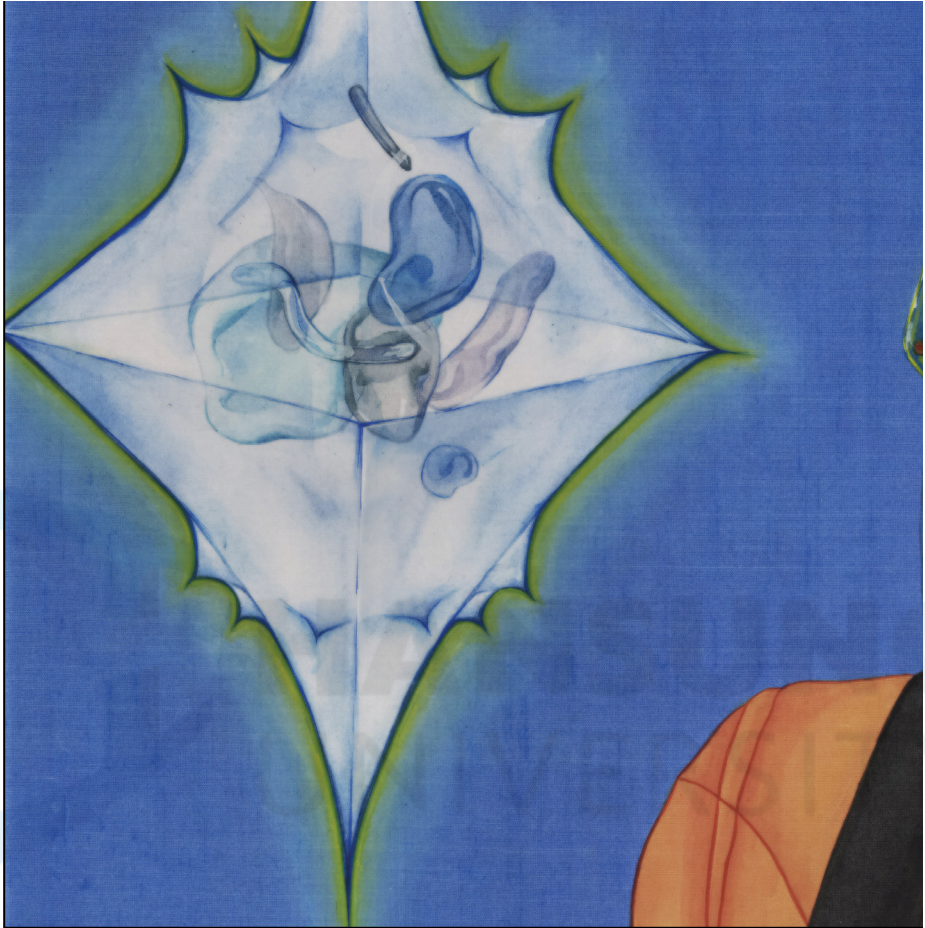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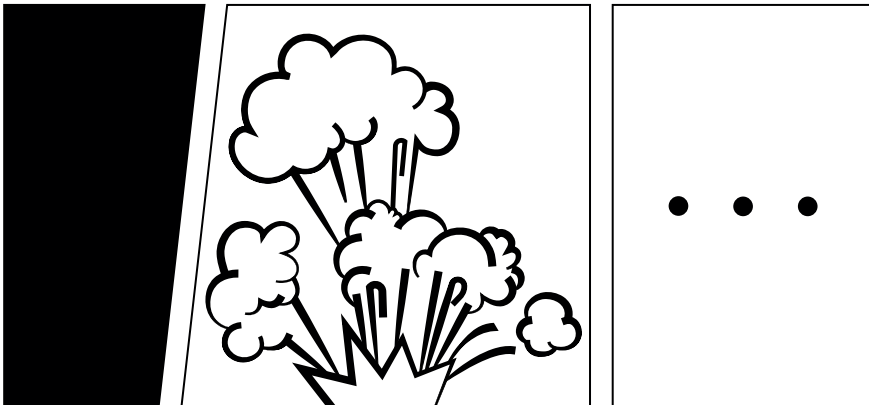


틈입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  
 나요? 그럼 감정의 틈입은 같  
 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면 또 질문해보죠. 사랑은 무  
 엇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정이란 셀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감정의 조절은  
 사실 가능한 건가요? 그럼  
 슬픔은 어떻게 생각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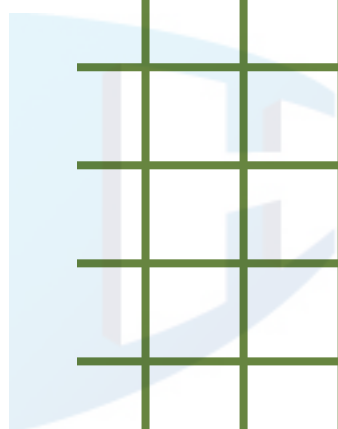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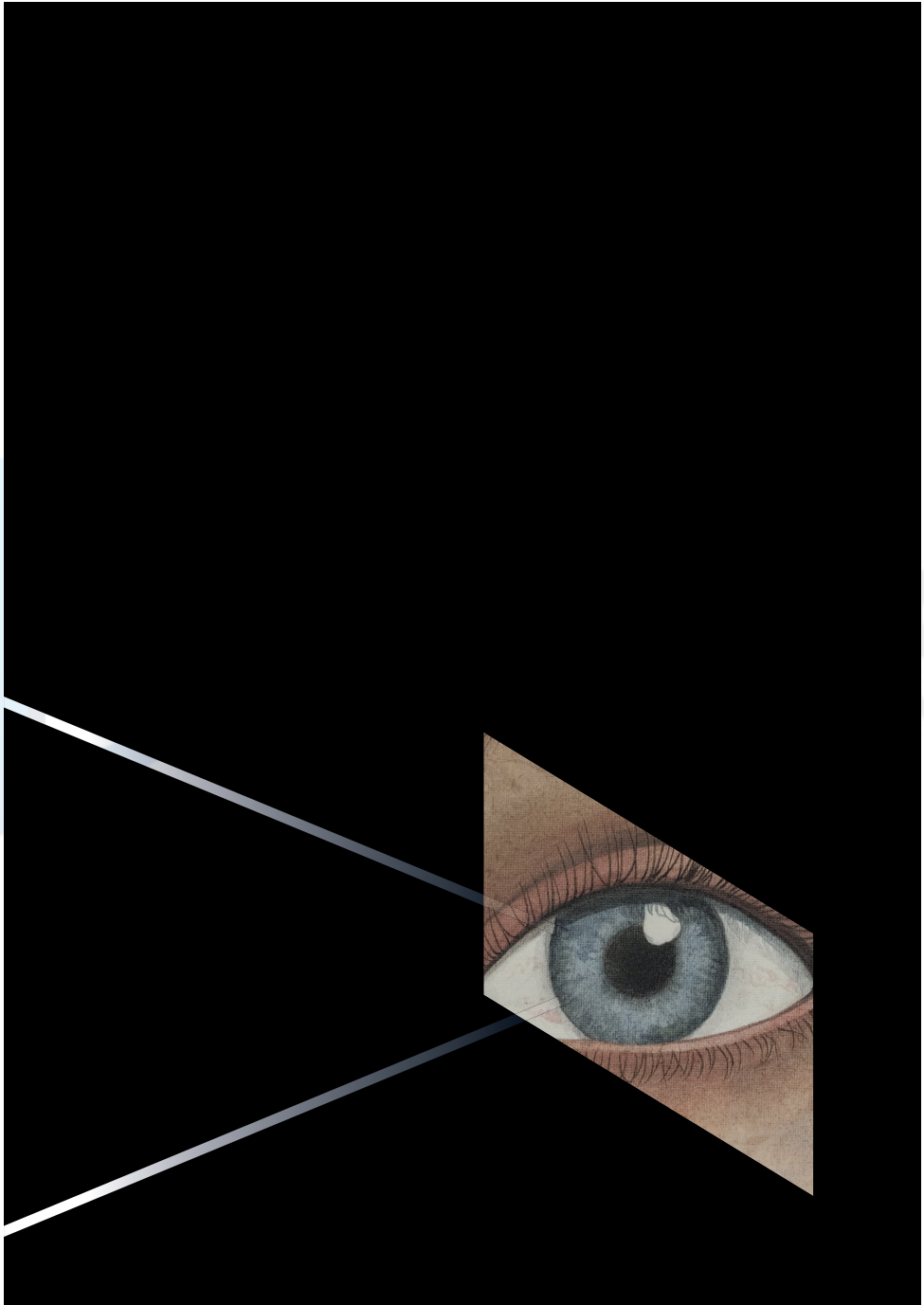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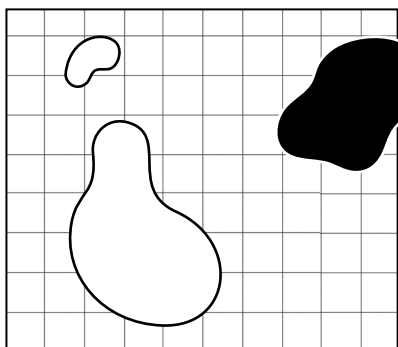
**HANS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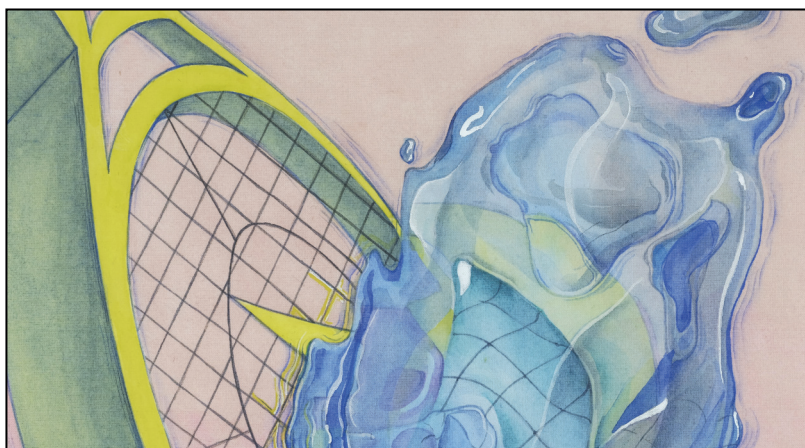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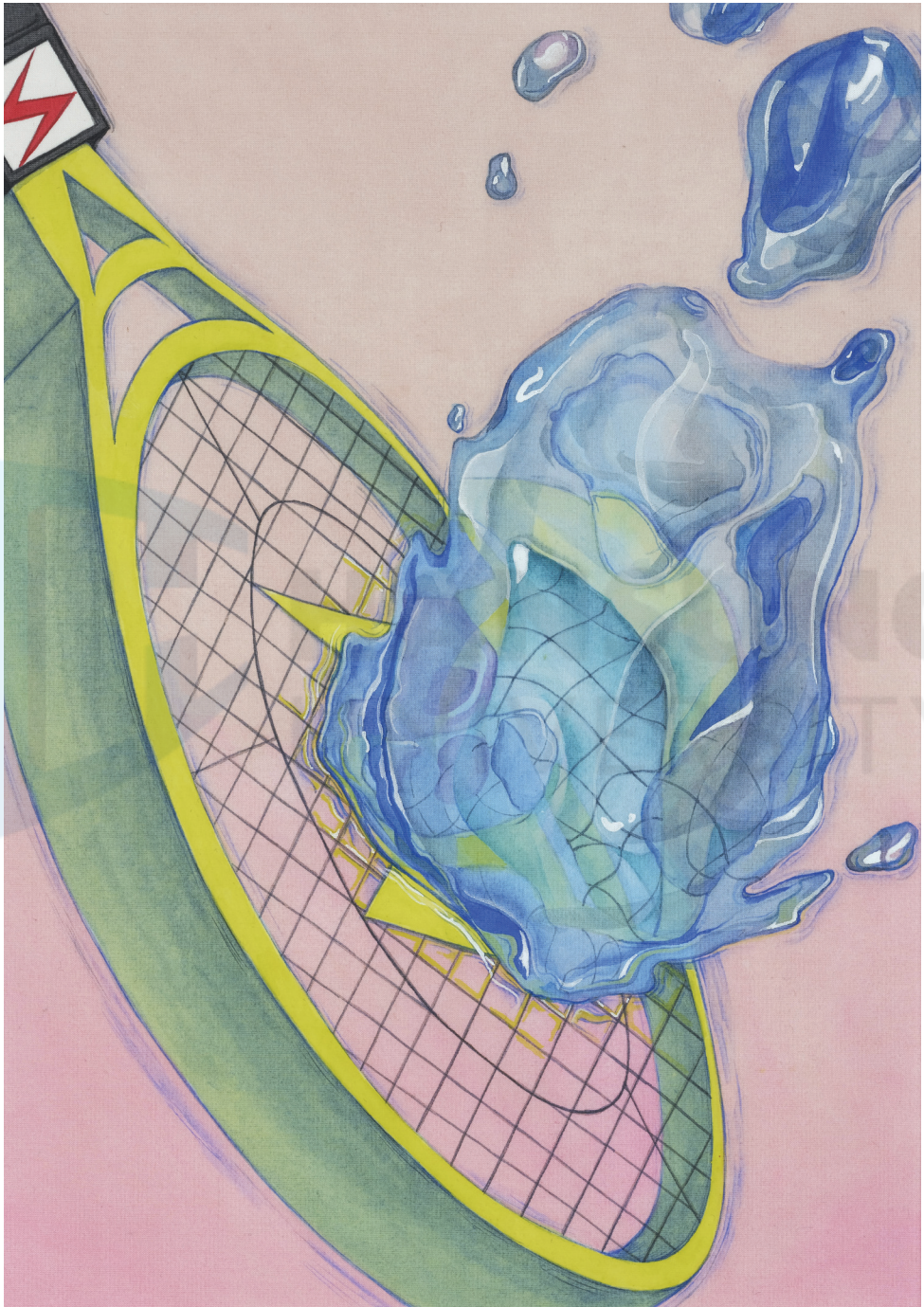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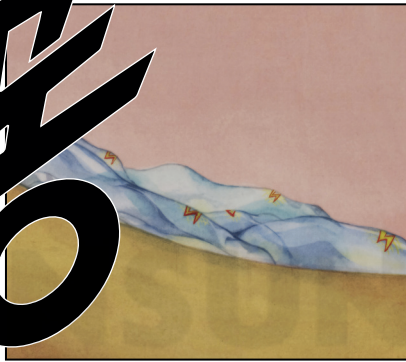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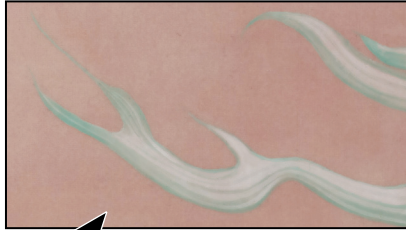
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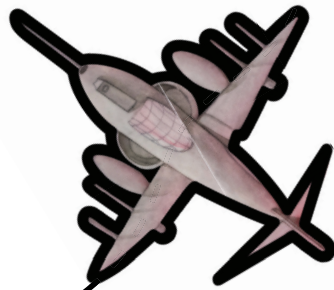
# 핑-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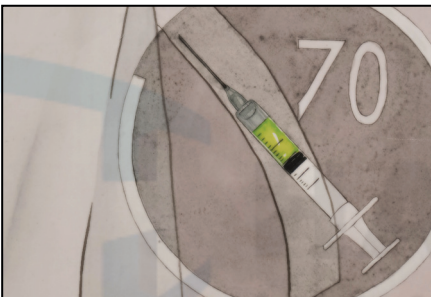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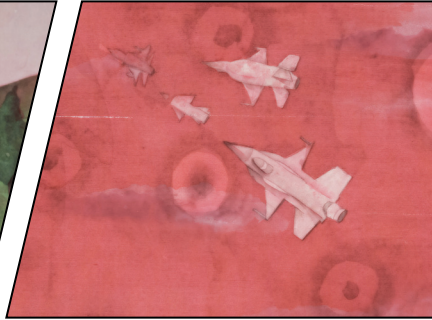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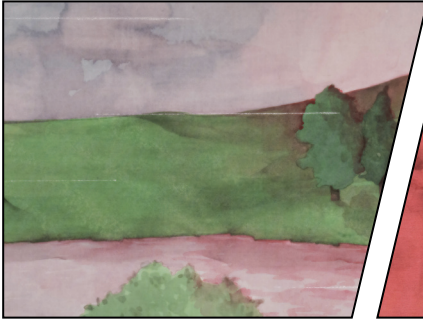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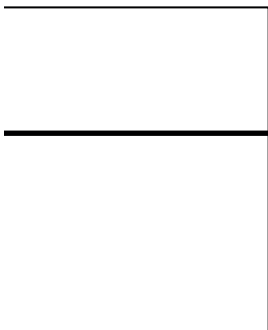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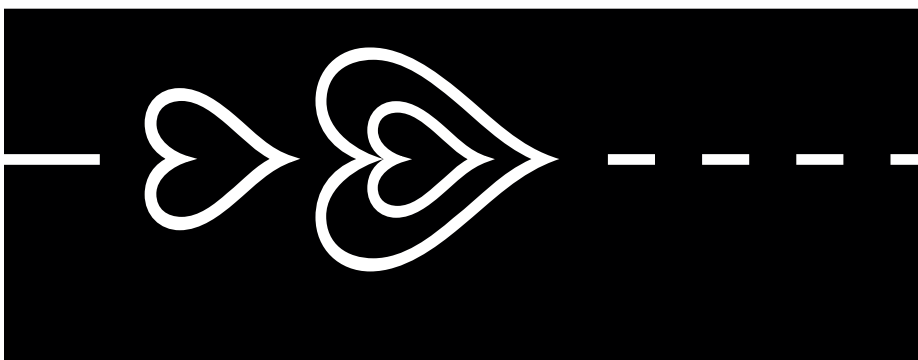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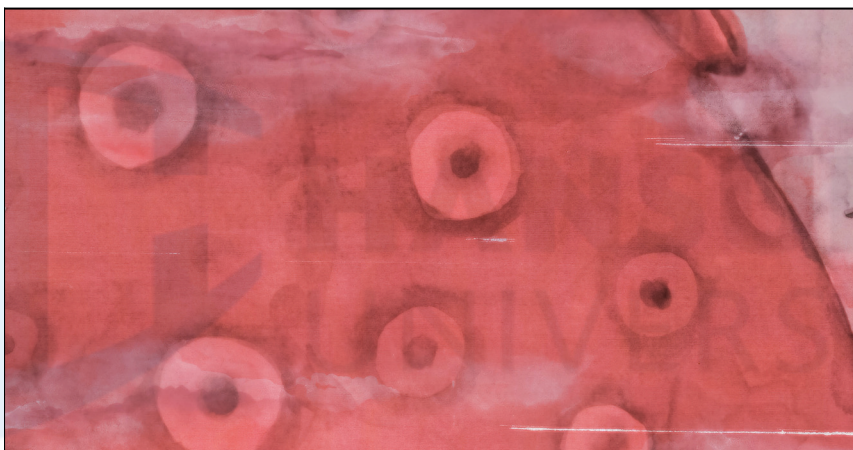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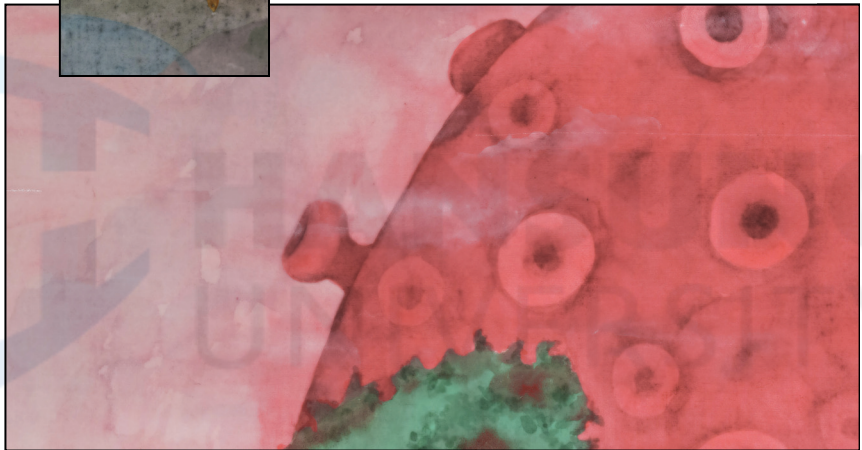




76



|  |  |
|--|--|
|  |  |
|  |  |



|  |
|--|
|  |
|  |







[illegible]

**어째서, 특별편!**

☒

4. The four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sults. It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the findings and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5. The fifth part of the document provides a summary of the key points discussed throughout the document. It serves as a concise overview of the entire study.



## 《작가의 아무래도 상관 없는 이야기》

제 작업 공간엔 생물이 없어서 작은 몬스테라 하나를 두게 되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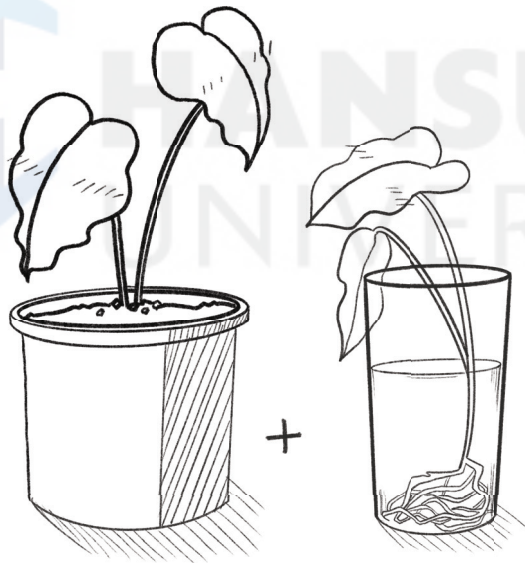
이름은 '몬테크리스토'로 지어줬어요. (이유는 딱히 없음)

그런데 몬테가 해가 잘 안 들어서 크지 않는 것 같았죠.

지인들이 놀려 와서도 조화를 가져다 놓은 게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유심히 보니 너무 자라있는 거죠!

우리 몬테는 조화가 아니었어!



지금은 뿌리가 자라서 수경 재배까지 잘 크고 있어요!

앞이 갈라지는 그날까지!

**1. 감정쿤에겐 연결짱과 단결짱은 무척 소중한!**

- 5 내가 풀리곤 덩어리라니! / 비단에 채색 / 15 x 15 cm / 2022
- 5 이 세계에선 내가 최강 / 비단에 채색 / 27.3 x 45.5 cm / 2022
- 6 이 중압감은 뭐야! / 비단에 채색 / 31.8 x 40.9 cm / 2022
- 8 픽셀 / 비단에 채색 / 9 x 14 cm / 2022
- 9 귀엽기만 한 게 아니라구! / 비단에 채색 / 30 x 30 cm / 2022
- 11 하트 크러쉬 빔 / 비단에 채색 / 116.8 x 91.0 cm / 2022
- 12 하트 크러쉬 쿵 / 비단에 채색 / 42 x 29.7 cm / 2022
- 15 폴 인 러브 / 비단에 채색 / 91.9 x 65.1cm / 2022
- 16 Emoji is... / 비단에 채색 / 20 x 45 cm / 2022
- 16 Emoji is... / 비단에 채색 / 20 x 45 cm / 2022
- 17 파란 눈 N.3 / 비단에 채색 / 50 x 50 cm / 2022
- 19 Bomb-ing / 비단에 채색 / 20 x 45 cm / 2022
- 19 Bomb-ing / 비단에 채색 / 20 x 45 cm / 2022
- 22 감정이라는 건 구축되는 거야! / 비단에 채색 / 67 x 44 cm / 2022
- 23 그렇게 갑자기 다가오면 연결짱도 당황해! / 비단에 채색 / 12.5 x 32 cm / 2022
- 25 연락을 기다리지만 기다리기 싫어! / 비단에 채색 / 72.7 x 60.6cm / 2022
- 27 유해해 보이는 화면과 그렇지 못한 외모 / 비단에 채색 / 29.7 x 21 cm / 2022
- 29 터지는 감정 2D로 볼까 3D로 볼까? / 비단에 채색 / 67 x 44 cm / 2022
- 30 눈물로 베개 적신 사연 / 비단에 채색 / 35 x 35 cm / 2022
- 33 How to see s2 / 비단에 채색 / 20 x 20 cm / 2022
- 34 등곳길에는 토스트만 한 게 없지 / 비단에 채색 / 15x15 cm / 2022

## 2. 몰라요! 무리무리무리!

- 36 슬라임 보다 못한 건 / 비단에 채색 / 15 x 15 cm / 2022
- 38 몰라요는 아무것도 몰라요 / 비단에 채색 / 45.5 x 38 cm / 2022
- 41 몰라요가 되고 싶었을 뿐 / 비단에 채색 / 45.5 x 65.2 cm / 2022
- 45 초점 금지 / 비단에 채색 / 10 x 10 cm / 2022
- 46 몰라요 / 비단에 채색 / 16 x 13 cm / 2022
- 49 임인년도 몰라요 / 비단에 채색 / 27.5 x 34.8 cm / 2022
- 51 가장 크게 즐거웠을 때 / 비단에 채색 / 50 x 50 cm / 2022
- 53 좋...좋아해! / 비단에 채색 / 15 x 15 cm / 2022



## 3. 방심은 금물이라구!

- 57 Germs / 비단에 채색 / 41 x 32cm / 2021
- 59 Germs 2 / 비단에 채색 / 27 x 21cm / 2021
- 64 Ph.D Eva 비단에 채색 / 60.5 x 50cm / 2021
- 66 Customizing / 비단에 채색 / 50 x 50cm / 2021
- 69 Collecting / 29.7 x 21cm / 2021
- 71 죽기 3초 전 / 비단에 채색 / 76 x 45cm / 2021
- 79 IMG\_틈입 : 군 스틸컷.JPG\_ / 비단에채색 / 163.7 x 116.8cm / 2021





**샌드박스모드**

**—로그인 하자마자 이 세계를 정복해버렸다!**

2022년 11월 발행

작가 : 배유림

디자인 : 박현진, 최영은

협력 기획: 나윤성

baeyl0306@naver.com

@yoo\_rim\_bae